“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7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3일(음력 10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김장김치 ·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양주 청련사(회주 상진 스님 · 태고종 총무원장)는 11월 24일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의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청련사가 이날 장흥면에 전달한 물품은 김장김치 12kg씩 100박스와 라면 100박스, 화장지 105세트, 연탄 1만장이다. 사진은 상진 스님을 비롯한 청련사 대중 스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 사진=태고종**

“화두일념으로 만마·천불 불태워야”

성파 대종사, 동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12월 4일(음력 10월 15일) 을사년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금일 결제 대중은 결제를 해도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해제를 해도 해제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며 “티끌 한 점이 눈에 들어가면 헛꽃이 휘날리느니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돼 만마(萬魔)와 천불(千佛)을 모두 태워버릴 때 불조(佛祖)의 향상일로(向上一路)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시주(施主)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리라”며 결제 대중의 부단한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잡다한 세상일을 떠나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는 일은 상근기(上根機) 수행자라야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깊은 바다의 큰 고기를 낚는 일과 같다”고 안거를 성만한 대중을 격려하며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으며 범부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족한 본래면목을 찾아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고 대교화인(大教化人)이 되는 일은 불조의 은혜를 갚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거는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와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참선에 전념하는 수행 전통이다.

〈종정 · 방장 법어 11면〉 김내영 기자

“가려졌던 비구니 독립운동, 자료 정립부터”

한국비구니승가硏, 11월 27일 학술토론회

비구니 항일 활동 실체 규명
시대의식 · 공공 책임 발현에도
“보이지 않았던 역사”로 묻혀
명부 복원 · 기념사업 추진키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수행가풍을 형성하고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던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변두리에 놓여 있던 비구니 항일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일제강점기 비구니 연구의 기초 자료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스님)는 11월 2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근대 격랑 속의 한국 비구니 승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역사 기록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과 근대적 실천 활동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 활동에 대해 “기록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을 읽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역사”라며 불교계 내부의 기억 회복과 국가적 차원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영숙 연구원은 ‘일제강점기 비구니들의 시대인식과 독립운동’에서 기존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가 김마리아 등 기독교 여성 중심의 도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같은 시대, 같은 조국, 같은 억압 속에서 활동한 비구니들은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것.

전 연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미타사 비구니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 사찰을 기반으로 한 구호·연락망 활동, 보문사 은영 스님의 사찰 자주권 수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비구니들의 항일 실천은 분명하게 존재했으나 기록 방식의 한계로 가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게다가 속초 보광사가 독립운동 스님 135인을 모신 위패에 비구니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비구니 항일 운동이 소외돼 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비구니 항일 활동에 대한 체계적 검증과 복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비구니 항일 운동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비구니들의 활동은 암자, 포교당, 사찰 네트워크 속에서 일상과 수행, 돌봄과 불사에 은밀히 흡수되며 이어졌고 그 기록은 구술, 사진 파편, 지역사회 기억 등으로 흩어져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이 어려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비구니들이 보여 준 사찰 수호, 재산 보호, 피난처 제공, 군자금 후방 지원 등의 활동은 그동안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영역”이라면서 “비구니 독립운동은 몇몇 ‘영웅적 인물’의 예외적 행동이 아니라 당시 비구니 수행공동체 전체가 공유한 시대 인식과 공공 책임의 발현이었다”고 말했다.

조은수 명예교수는 발제 ‘불교 신여성의 등장과 비구니의 근대의식’에서 비구니가 근대사 속에서 ‘수동적 수행자’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 활동한 점을 강조했다.

20세기 초반 불교 신여성 등장 등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자아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주체적 의식을 확장해 나갔다”고 분석했다. 또 만공·한암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비구니 선사들의 존재를 언급하며 “근대 비구니들은 수행 전통 계승과 도량 운영을 통해 독자적 수행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하춘생 동국대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와 봉녕사승가대학 교수 효석 스님은 비구니 독립운동의 자료가 사찰 문서, 구술 기록, 지역사회 기억 등으로 흩어져 있어 추가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불교계 차원의 비구니 독립운동 명부 복원과 기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심원 스님은 “비구니 항일 활동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 양쪽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영역”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불교 ‘AI&미래불교’ 불기협 대상 수상

한국불교기자협, 11월 24일 발표
“향후 전법 · 포교 전략에도 도움”
12월 8일 조계사 관음전서 시상식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의 기획 특집 ‘AI&미래불교’가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보배)가 11월 24일 2025년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허남결)를 열고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의 창간 31주년 특집 ‘AI&미래불교’를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기획·해설부문 최우수상은 윤호섭 BTN불교TV 기자의 광복 80주년 연속기획 ‘다시 읽는 조선침략참회기’가, 취재·보도부문 최우수상은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의 ‘불교계 종교교과서 부재와 편찬 필요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불교신문의 ‘AI&미래불교’는 AI시대의 흐름에 맞춰 불교적 가치와 시대적 과제를 폭넓게 조명한 기획이다. 불교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웃 종교의 대응 사례를 분석했으며, 인터넷에서 AI를 활용해 손쉽게 양산되는 상업적·비불교적 콘텐츠의 범람 문제도 짚어냈다.

특히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좌담회를 통해 AI시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좌담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 AI 윤리선언’ 제정의 시급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불교계 최초로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불자와 일반 대중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하고, 불교와 디지털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대상으로 선정된 현대불교 편집국의 창간 31주년 ‘AI&미래불교’는 AI시대에 불교가 헤쳐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이 단연 돋보였다”며 “향후 우리 불교계가 전법과 포교 전략을 세우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오후 6시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12월 20일(토) 오전 10시 (법문 10시 40분)
◈ : 관촉사 대웅전
◈ : 기도염불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 선업스님(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 02-737-7378
http://www.kbcd.org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조계종, 전법·포교에 안정적 재정 확보 추진

11월 26일 '주요 성과 · 종책 계획 보고회'

'재정확보 사업 TFT' 등 논의
제37대 집행부 3년 성과 공유
총무원 일원화 · 선명상 세계화
'저출생 · 고령화' 문제에도 앞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이 시대 변화에 맞춘 전법·포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6일 서울 센트럴폴리스 컨퍼런스룸에서 '제37대 집행부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새로운 재정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 차·팀장급 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종단도 시스템 조정, 종단 불사 등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오늘 그런 좋은 방향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단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포교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종단이 직접 주관하는 재정 확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종단 재정 확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재정확보 사업 TFT' 구성 등 재정 확보 추진 체계와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계획 논의에 앞서 조계종은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3년간 추진한 주요 종책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총평을 통해 올해 종단이 추진한 핵심 성과들을 공유했다.

묘장 스님은 종단의 가장 큰 변화로 '종헌'과 '총무원법' 개정을 통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을 총무원 단일 체계로 정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천년을 세우다' 사업의 일환으로 선명상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국제선명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계획 보고회'에서 종단의 새로운 재정 확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보존에서도 여러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 종단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전통사찰 보존법, 농지법 시행령 개정 등 국가법령 개정에 기여했으며, 사찰 경내지 주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통사찰 건축물 조사 결과에 따라 미양성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공원위원회와 사찰림연구소 관련 종령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찰림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포교 분야에서는 미래세대·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회를 지원했으며 불교박람회 등 행사에서 출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권역별 신규 출가학교 개설을 지원해 출가 가치 확산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국내외 재해 구호 △자비 나눔 등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 참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왔다.

묘장 스님은 "2025년 남은 한 달 동안,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불교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통사찰 가치 반영한 자연공원법 개정 필요"

조계종,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개정 공감 국회의원 35명 공동주최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생태 · 문화 ·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법 ·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통사찰이 단순 종교시설을 넘어 역사·문화·생태·경관이 결합된 복합적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35명 공동주최로 열렸다.

문화유산과 자연보호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현행 자연공원법이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집중 제기됐다.

기조발제에서 이영경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역사적 위상과 공공적 가치를 설명하며 '공존' 개념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의 '보존=인간배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통사찰이 자연의 피보존 객체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온 문화생태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또 국립공원 제도 안에서 사찰이 수행하는 생태적·문화적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체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찰지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7.4%를 차지한다. 행정적으로 부적합한 관리 카테고리에 적용되면서 전통사찰의 종교가치 저하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Ⅱ 중심에서 경관보전·공존형인 카테고리Ⅴ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다.

조계종은 향후 국회와 협력해 자연공원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정여 대종사

조계종 포교부, 11월 26일 발표
12월 11일 15시 조계사서 시상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사진〉가 선정됐다.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11월 26일 올해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인 종정상 수상자인 정여 스님은 부산 불교계의 선구자로 꼽힌다. 부산 최초로 불교계 사회복지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법인을 설립, 개금사회복지관장 소임을 시작으로 부산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계층 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설립했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주도에 기여했다. 또 종교 간 연대 활동을 통해 공동선 실천과 화합에 기여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은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전 육군본부참모 차장)이 받는다. 법해 스님은 국빈 및 종단 주요 행사 봉행을 통해 불교 위상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유치에 기여했고, 어린이·청소년 포교에도 힘쓰고 있다.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군불교 도량 불사 및 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군불교 신행단체 운영 및 조직 안정화에 힘쓴 점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총무원장상인 원력상은 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 박옥순 해외특별교구 사무팀장,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임은호 기자

"만해 잉태한 홍성불교, 내포로 확장·연구"

11월 27일 홍성서 학술세미나
종평위 · 수덕사, 홍성불교 고찰



홍성불교를 고찰하고 홍주읍성 일대의 불교사를 복원하기 위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7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불교와 한용운' 주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홍주읍성 발굴·정비 과정에서 다수의 사찰 부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홍주읍성 일대의 불교사를 복원하고, 홍성 지역 불교문화의 위상을 한 층 높이는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 지역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출생지이자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데 주목해 스님의 유산과 정신을 기리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성에서의 만해 스님' 주제 발제에서 스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을 살핀 후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의 출발점은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홍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는 '홍성불교의 위상과 연구과제' 발제에서 "홍주읍성에서 발견된 사찰 부재 일부를 읍성 안쪽에 모아 놓은 상태"라며 "이는 백제 이후 지역민의 신앙이 투영된 전통 유산인 만큼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와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홍성 불교사는 홍성이라는 행정구역 너머, 내포불교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상

역사 속 한국비구니
전영숙
민족사

올해의 불서10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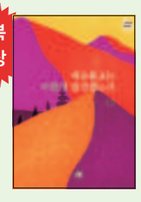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우수상

정원예찬
현진
담앤북스

한길 번역상

유식이십론
강형철 외
씨아이알

붓다북 학술상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지연
동국대출판문화원

보덕 전법상

붓다의 수첩 – 담마
성찬
수류산방

입선

거룩한 불편
유정길
모과나무


바위에 새긴 미소
문영숙 글
김태현 그림
현암주니어


일단 앉아볼까요
페마 초드론 저
이혜진 옮김
한문화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리타 그로스 저
김민정 옮김
운주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계 최고 통일 禮敬儀式集
의식법요집



〈불교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행〉

『통용불공법요집』『다비법요집』『천도법요집』은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그동안 선지식들이 남긴 뛰어난 불교의식집이 많았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부가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의식법요집은 사찰의 현실적 어려움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전통 의식을 재정리해 신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책이다.

다비법요집 (1,445쪽) 150,000원 | 천도법요집(853쪽) 100,000원 |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100,000원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보급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1-8414 H·P : 010-8653-3216

동국대, 대학평가 5년 연속 TOP10 '쾌거'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8위 달성
1단계 상승…최고 순위 재달성
생명 · 화학분야 '최우수大' 선정
기부금 5위 등 교육여건 개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종립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8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재기록했다. 또한 5년 연속 톱10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다. 지난 2021년 발족한 학교법인 건학위원회 중심으로 연구·교육 인프라 확충 등 내부역량 결집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평가다.

동국대는 11월 26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학평가 결과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윤재웅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 동국대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재탈환했으며, 5년 연속 톱10이라는 기록도 세웠다"며 "이는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교중흥, 동국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 학교 구성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202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는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연구 △교육 여건 △학생 성과 △평판도 등 4개 영역 38개 지표의 평가가 이뤄졌다. 동국대는 2021년 9위, 2022년 9위, 2023년 8위, 2024년 9위, 2025년 8위를 기록하며 5년 동안 상위 10위권을 안정적으로 수성했다.

특히 동국대는 올해 신설된 학문평가 부문에서 생명·화학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이공계열 전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이공계 중점프로젝트'를 전격 단행하며 석학급 우수 교원을 초빙하고 '동국그란트(GRANT) 사업' 확대를 통해 초대형 R&D 연구비 수주를 지원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 동국대는 외부연구비 10위, 국제학술지 논문수 11위 및 피인용 9위를 달성했다.

정영식 기획부총장은 "바이오메디캠퍼스 교수들이 국가 대형 과제를 수주함으로써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연구·교육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개선한 것이 주요한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반도체와 에너지 파트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경제 △전자·컴퓨터 △수학·물리 분야에서는 '우수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국대는 건학이념 바탕에 '불교'가 있는 만큼 불교학을 비롯한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학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인문사회 분야 논문 수는 9위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피인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이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면서 "인문사회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해 불교학을 비롯해 문·사·철이 강점이었던 동국대의 정체성과 면모를 다시 부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목표로 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썼고, 이는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데 큰 요인이 됐다.

실제 불교계 등에서 답지하는 기부금으로 평가 대학 중 기부금 분야 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학부 1인당 장학금 9위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확대와 교내 취업박람회 등으로 중도 포기율이 낮은 대학 5위(2.9%)를 달성할 정도로 학생 만족도도 높게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7위,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10위, 국가·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학 9위, 기여할 대학 7위에 선정되며 대학 전반 평판과 이미지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동국대는 불교종립학교인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등 인성함양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조직에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내 대학 톱5, 세계 대학 톱100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학내 구성원 모두가 정진할 뜻을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오늘 자리는 자축이 아니라 법인과 학교가 어떤 것을 보완하고 목표를 위해 각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리"라면서 "교수와 직원 모두 열심히 해 주고 있지만 도약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변화가 필요하다. 건학이념을 되새기면서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하철 풍경소리 게시판 잇단 훼손

경춘선 등서 동일수법 20건 발견
수사 중 범행 이어…"대책 시급"


남춘천역 역사 내 풍경소리 게시판에 붉은색 매직으로 'X'가 그어진 모습.

전국 주요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서 풍경소리 게시판이 계속해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 스님)는 11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부터 남춘천역을 비롯해 15곳 이상의 풍경소리 게시판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춘천경찰서에 특정 범인을 고소한 상태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풍경소리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춘선 남춘천역 관계자가 풍경소리 게시판에 붉은 매직펜으로 'X'를 긋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발견, 풍경소리 측에 이를 제보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에도 보물로 지정된 춘천 칠층석탑에 낙서를 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6~7개월에 걸쳐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역사의 게시판에 같은 수법의 훼손이 이어졌다. 풍경소리는 지난 8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협의로 춘천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남춘천역 게시판을 4차례씩이나 반복 훼손해 왔다. 피해 게시판은 20여 개에 달한다. 목종 스님은 "게시물 교체 시 폭력행위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따라 공론화를 하게 됐다"면서 "범인 처벌 및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6-5583 임은호 기자

진주 호국사, 환지본처 '독성도' 공개

11월 21일 환수 공식 발표
"문화유산 지정 신속 지원"


1860년대 조성된 '독성도'.

진주 호국사(주지 학암 스님)는 11월 21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문화부와 함께 1860년 제작된 '독성도(獨聖圖)' 환수를 공식 발표하고 성보를 공개했다. 이번 환수는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러 있던 성보가 환지본처한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독성도 환수 경과보고'에 따르면 독성도의 최초 해외 반출 시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경매자료 분석 결과 1959~1969년 주한 프랑스 대사 로제 샹바르(Roger Chambard)가 초기 해외 소장자로 파악됐다. 그는 한국 불교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진 인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감동해 유해 일부를 해인사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독성도는 여러 사적 경로를 거쳐 해외 경매시장에 출품됐으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해외 경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지만, '한풍 10년(1860)' 조성 기록, '진주'·'진주성' 표기, 호국사의 옛 명칭 등을 종합해 호국사 유래 성보임을 확정했다.

종단과 호국사는 9월 11일 오스트리아 실시간 경매에 참여해 독성도를 낙찰받았고, 통관 절차를 마친 뒤 10월 22일 독성도를 호국사로 안전하게 이운했다. 전문가들은 호국사 독성도를 "19세기 중반 독성도의 초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해인사 화승과 진주 지역의 불화 전통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했다.

주지 학암 스님은 "오랜 세월 외국에 머물러 있던 성보가 다시 진주 땅, 호국사 품으로 돌아온 것은 부처님의 크신 가피"라며 "앞으로 천일기도를 봉행해 독성의 가피가 진주 시민과 사부대중에게 널리 회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경매 과정에서 학암 스님이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어려운 조건에도 과감히 나섰다. 이 원력이 없었다면 환수는 불가능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번 귀환이야말로 '홀로 떠났으나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인연'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흩어진 성보들이 부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환수는 진주시 전체의 자랑이며,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국사는 내년 1월 독성도 환수 기념 천일기도에 입재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33회 불미전 개막…대상에 최윤수 작가

12월 3일까지 수상작 전시
"불교미술, 수행이자 신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상 수상작인 최윤수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을 감상하고 있다.

한국 불교미술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불미전) 수상작 전시회가 개막했다.

조계종은 11월 26일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제33회 불미전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불미전 공모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8% 증가한 219점(회화 108점, 조각 28점, 공예 58점, 미디어아트 25점)이 출품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불미전 대상에는 조각 부문의 최윤수 작가가 출품한 '그대에게 가는 길'이 선정됐다. 최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은 형상과 의미, 기술과 감성의 조화를 두루 갖춘 수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회화 부문 최현희 작가의 '불입심상', 공예 부문 홍우진 작가의 '대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회화 부문 조미영 작가의 '화엄경약찬게'(국가유산청장상)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회화 부문 김정심 작가의 '펜 하나로 그리는 만다라', 김민지 작가의 '김룡사 신중도', 조각 부문 안경진 작가의 '숨', 공예 부문 김민주 작가의 '금빛서사'가 이름을 올렸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미술은 수행이며 신행이자 자비의 실천"이라며 "불교미술인들의 붓과 조각칼이 부처님의 자비를 새기고 세상에 희망의 색을 입히는 법공양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상작 전시는 12월 3일까지 아라아트센터에서 이어진다. 신중일 기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홍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미리 준비하는 26년 성지순례+관광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3박4일
▶출발일: 화
양곤 4박5일
▶출발일: 금/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박7일 ▶출발일: 문의

순례자의 길, 오헨로
시코쿠+다카마츠 4박5일
▲규슈 온천여행
▲오사카/도쿄 등 일본 전지역 문화탐방

화엄의 세계가 담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지상낙원 발리 4박6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명상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특별기고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부스 체험기

동국대 아닌 첫 외부행사 의미↑
24종 명상체험과 세계 명상 체험
시민 참여 확대로 대중화 견인해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세텍(SETEC)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는 동국대가 아닌 외부에 열린 첫 행사여서 의미를 더 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명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번 엑스포의 핵심은 총 24종의 명상체험부스와 9개국 전통 수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명상체험이다. 체험부스에서는 몸·호흡·감각·예술·사유·표현 등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이 준비됐다. 움직임 명상, 싱잉볼과 아로마 명상, 사경·글쓰기, 차 명상 등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세계명상체험은 미국(하와이)·티베트·튀르키예·일본·영국·스리랑카·인도·방글라데시 등 총 9개국의 명상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폭넓은 국제 수행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티베트 모래 만다라, 일본 좌선과 가드닝 선, 스리랑카식 위빠사나, 인도의 프라나야마 등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서도 각국 수행법의 특성과 깊이를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올해 명상엑스포는 도심 속에서 다양한 명상 수행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행사장을 찾은 필자는 싱잉볼 명상, 움직임 명상, 사경·글쓰기 명상, 일본 ‘젠’ 체험과 티베트식 명상을 중심으로 부스를 둘러봤다. 공간 내부는 차분한 조명과 은은한 향기, 부스별로 구성된 소리·이미지·도구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명상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가장 먼저 체험한 싱잉볼 명상에서는 금속 그릇을 두드리거나 문지르며 나오는 소리가 공간 전체를 감싸며 진동이 몸을 따라 전달되는 감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획자는 울림의 높낮이와 공명의 차이를 설명하며 “소리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과 변화에 몸을 열어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눈을 감고 진동에 집중하거나, 편안하게 누워 긴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 명상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감각을 열어주는 친절한 명상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총 24종의 명상체험부스와 9개국 전통 수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명상체험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움직임 명상 부스에서는 명상이 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의 알아차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걷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호흡, 발의 무게 중심, 발바닥의 감각 등 일상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요소들에 집중했다. “도심 실내에서 이런 명상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집중의 흐름이 만들어지자 주변의 소음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속도대로 고요한 걷기를 이어갔다. 특히 젊은 참가자들은 “명상적 걷기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만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함을 내비쳤다.

사경·글쓰기 명상은 깊은 내면에 접근하는 시간이었다. 필자는 짧은 경구를 반복해 쓰면서 초기에는 마음이 분주했으나, 글자 형태와 획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정리되고 차분함이 찾아오는 경험을 했다. 글쓰기 명상에서는 ‘오늘 나에게 남아 있는 감정’을 적어보라는 안내가 주어졌고, 참가자들은 일상의 피로·감사·안정감 등 다양한 감정을 글로 표현했다. 명상을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오히려 ‘내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고 기록하는 것’이 명상적 수행과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는 모습.

세계명상체험은 이번 행사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일본 젠(禪) 부스에서는 좌선 자세와 호흡을 중심으로 짧은 수행을 진행했다. 선 수행 특유의 단정함과 절제된 구조 속에서, 참가자들은 생각이 차분히 정리되는 경험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젠 체험 기획자는 “복잡한 기술보다 호흡 하나, 자세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다”며, 선(禪)이 일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강조했다.

티베트 명상 부스에서는 티베트 전통 기도문과 함께 호흡·이미지 관법이 소개됐다. 낭송되는 기도의 울림과 안내자의 리듬감 있는 말투는 자연스럽게 집중을 유도하며, 깊은 호흡과 상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이국적이면서도 강한 몰입감을 제공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명상의 깊이를 체험하며 세계 수행법의 다양성과 폭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엑스포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의 변화’가 가져온 참여의 폭 확대였다. 동국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학여울역과 바로 연결된 세텍으로 이동하면서 시민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20~30대 직장인·외국인 참가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했다. 부스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한 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연이어 체험하는 모습에서 명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명상을 체험하며 느낀 점은 명상이 현대인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짧은 체험이었지만, 걷기 한 걸음·사경 한 획·싱잉볼의 울림 하나가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명상은 거창한 도구나 특별한 교육 없이도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엑스포는 명확하게 보여줬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명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훈 동국대 박사과정생〉

‘1250 아라한’ 충청권 포교 역량 결집

11월 22일, 세종 광제사서
2000여 명 전법 의지 다져

충청 불교계가 모든 존재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대중의 서원을 모아 전법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2일 세종 광제사에서 ‘2025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 – 1250인 아라한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법주사·마곡사·수덕사·광제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결집대회에는 충청권 본·말사 스님과 신도, 포교사단·여성불자회·대학생불자회·연합합창단 등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역불교 중흥의 의지를 모았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어린이에게 서원건을 걸어주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치사에서 “이번 대회는 종교인구 감소와 여러 난관 속에서 위축된 지역 포교 현장을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사찰은 포교의 중심이며 전법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단은 제도·교육·전법을 연계해 생활포교 시대를 열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포교 없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오늘의 결집이 미래세대의 불성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원 통합을 통해 교육·수행·전법이 하나로 흐르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현장을 더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핵심인 ‘1250인 아라한 인증’에서 충청권 주지 스님들은 대표자들에게 서원건을 걸어주며 공동체의 아라한임을 확인했다. 어린이·청소년·대학생·포교사 등 계층별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전법을 다짐하는 실천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부처님처럼 맑은 마음으로 자기 일은 스스로 하며, 공부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것 △부처님 가르침으로 지혜를 완성하고 내 이웃에 대한 자비를 온전히 실천할 것 △모든 이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나부터 수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죽음준비, Ending 아닌 Anding”

18년 죽음준비교육 성과 바탕
정관 스님, 3세대 죽음교육 선언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11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2025년 죽음준비교육 심포지엄 Anding Plan’을 실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과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복지관의 지난 18년간 죽음준비교육 실천 경험과 2세대 죽음준비교육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죽음준비교육 전문가와 전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부터 임종준비 프로그램 ‘나·비’를 활용해 죽음준비교육을 운영했다. 2020년부터는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을 벗어나 통합돌봄 시대에 맞춘 2세대 죽음준비교육 ‘방문돌봄형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을 개발·도입했다.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학습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 학습영상과 워크북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을 포함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죽음준비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관 스님은 이날 3세대 교육 모델로 ‘Anding 미디어아트센터’ 죽음준비교육을 소개했다. 이는 전 세대가 3D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구성됐다. 정관 스님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확산형 교육 플랫폼 구축, 시니어 앤딩(Anding) 플래너를 배치하고 3세대 죽음준비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죽음준비를 ‘끝(Ending)’이 아닌 ‘이어짐(Anding)’으로 바라보며 지속되는 삶에 가치를 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로터스월드, 캄보디아-태국 분쟁 난민 지원

11월 14일, 난민 350가구 지원
통해사 · 간월암 등서 후원 이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발생한 시엠립·오다르메안체이 주 난민 350가구 지원을 완료했다.

로터스월드는 7월부터 진행한 캠페인 ‘캄보디아 국경 분쟁, 시엠립 난민에게 희망을’을 통해 모연된 후원금과 사찰 물품후원으로 8월 22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난민들에게 쌀 2톤, 생수 500박스, 라면 50박스, 생필품 키트(세면도구, 수건) 300세트, 아동용 가방 200개 등을 지원했다.〈사진〉



난민들은 7월 24일 발생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을 피해 오다르메안체이주(Oddar Meanchey Province)·프레아비헤아르주(Preah Vihear Province)에서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으로 대피한 이들이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천막으로 된 임시 피난처에서 생활하며 식료품과 식수 부족한 환경에 처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번 지원은 네이버 해비빈과 로터스월드 후원계좌를 통한 후원금 이외에 해군 중앙법당 통해사(주지 만소 스님)와 로터스월드 개인 후원자의 물품후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통해사는 생필품 키트 300세트 분량을, 로터스월드 개인 후원자는 아동용 가방 약 200여 개를 각각 지원했다. 특히 간월암(주지 정경 스님)에서 200만원을 후원, 각종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임은호 기자

종교계-정부, 국민 안전 체계 구축 약속

성웅 스님 등 김민석 총리 만나
‘생명존중 · 자살예방’ 협약 체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사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불교·원불교·기독교·천주교 등 4대 종교 대표자를 만나 정부와 종교계 간 ‘상생협력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 및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협약에 대해 “사회적 난제를 다루는데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마음과 삶까지 살피기 위해 국민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온 종교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별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첫 원탁회의에서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나눔 정신, 장아찌 반찬에 담았죠

문화사업단, 반찬도시락 나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협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1월 27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반찬도시락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체험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나눔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찰음식의 나눔·자비·절제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종로구청이 협업했다.

문화사업단은 장기보관이 가능한 표고버섯장아찌와 궁채장아찌 2종의 사찰음식 반찬을 마련하고 이를 밀짚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용기에 담아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실천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음식 전문가 유화 스님 등 체험관 구성원들의 정성이 담긴 사찰음식 반찬도시락은 종로 쪽방촌 거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취약계층 400가구에게 전달됐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대만 연수 “환경보호 일상서 실천” 다짐

11월 21~24일 ‘대만불교 교육연수’
친환경센터 등 찾아 자원순환 체험
봉사자가 분류·세척 등 자발적 참여
“텀블러·손수건 사용 습관화 해야”

대만 타이베이=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대만불교 교육연수’에서 자제공덕회 친환경센터를 방문해 불교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자원순환 ·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본지가 진행 중인 ‘지구사랑 캠페인’을 소개하고,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자제정사당 기념관을 관람하는 모습.

친환경센터의 골동품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섬유로 제작된 유니폼을 착용하며, 폐기물을 수거해 분류 · 세척하고 자원으로 순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잘 실천하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자제공덕회의 활동에 대만 정부가 얼마나 큰 신뢰를 보이고, 국민이 함께 호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도 이를 적극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재활용 과정이 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환경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이현지 미디어국 사원)**

“환경보호에 대해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도 이런 친환경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조여경 경영국 구독관리 과장)**

자제공덕회의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교의 실천적 역할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은 11월 21~24일 대만 타이베이 일대에서 ‘대만불교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자제공덕회 친환경센터와 자제정사당 기념관 등을 방문해 불교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자원순환·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자제공덕회는 1966년 증엄 스님이 설립한 대만 대표 불교NGO다. 경제적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이웃을 계기로 사회봉사의 필요성을 느껴 창립했고, 30여 명의 주부가 매일 반찬값을 아껴 5전(약 20원)씩 모은 기금으로 곁에서 성장을 도왔다. 현재는 전 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의료·국제구호·환경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만 내 회원 수만 300여 만명, 자원봉사자는 25여 만명에 달한다. 자원봉사자는 2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거쳐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섬유로 제작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자제공덕회의 환경보호 운동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각 지역에 친환경센터를 설치해 봉사자들이 수거한 폐기물을 분류·세척하고 자원으로 순환시켜 환경보호를 일상의 수행으로 확장한 것이다. 현재 대만 전역에는 287개 친환경센터에서 10여 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은 타이베이 동산지구에 위치한 친환경센터를 찾아 이 같은 활동을 직접 체험했다. 센터에서는 페트병·비닐·종이·스티로폼 등을 세세하게 분류한 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제조공장으로 보내 가방·의류·담요 등으로 재탄생시킨다. 완성품은 지역 저소득층, 재난현장 등에 우선 공급한다.

무엇보다 이곳은 지역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봉사로 일상을 보내고, 함께 식사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안내한 홍시 자원봉사자는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채식 위주 식사로 환경보호도 실천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내부에는 재사용 가능한 책과 의류, 생활집기 등을 판매하는 중고물품 상점과 지난 20여 년 동안 폐기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집된 골동품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도 조성돼 있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홍시 자원봉사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인간이 초래한 문제인 만큼, 인간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매일 많은 쓰레기가 모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를 마신 뒤에는 반드시 용기를 헹구고, 젓가락·수저·텀블러·손수건을 항상 지니는 등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물건을 구매할 때도 진정 필요한 것인지, 단순히 사고 싶은 욕구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센터 관람을 마친 현대불교신문은 본지가 진행 중인 ‘지구사랑 캠페인’을 소개하고 EM을 활용한 비누 등을 선물하며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한명우 대표이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실천이다. 이제는 종교를 넘어 환경을 살리는 일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원한다”며 “현대불교신문도 환경보호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혜와 실천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불교신문은 자제공덕회의 활동과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디엔 자제정사당 기념관도 관람했다. 기념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해 제작한 다양한 전시품과 자제공덕회의 실천 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구성돼 있었다.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춰져 있다. 24년간 자제공덕회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류쥔안(劉鈞安) 슈퍼바이저는 “자제공덕회가 병원과 대학, 전 세계 지부를 갖춘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힘을 보탠 덕분”이라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자비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폐교 앞둔 학생들 지원

전교생 30명 마지막 수학여행
가정 환경 고려해 캐리어 지원
여행경비·어린이신문 등 후원
혜도 스님 "흔들림 없는 성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학생들에게 전달될 새 캐리어를 함께 들어 보이는 박용호 교장과 혜도 스님.

폐교를 앞둔 부산 영도의 한 초등학교. 11월 25일 마지막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임에도 운동장은 학생들의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다. 새로 받은 캐리어를 조심스레 끌며 버스로 향하는 아이들, 친구들과 서로의 가방을 짐칸에 실어 주며 신나게 웃는 장면이 펼쳐졌다. 폐교의 아쉬움 속에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의 따뜻한 응원이 더해지며 아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A초등학교는 전교생 3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다. 올해 6학년 5명이 졸업하면 나머지 25명의 학생들은 내년부터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학여행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가정 형편상 캐리어가 없거나, 파손된 캐리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됐다. 또 한부모가정(모자원)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와 담을 맞대고 있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선원은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논의해 전교생에게 새 캐리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캐리어에는 학생들의 여행을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안내지가 부착돼 선원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혜도 스님은 여행 경비 100만원도 별도로 지원했다.

박용호 교장은 "기부자의 뜻을 살려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은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발전기금에 편입해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은 취약가정 학생들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외부 공개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행 전에 짐을 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리어를 미리 전달했다. 아울러 선원은 A초등학교와 더불어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에 어린이 일간 신문 '소년한국일보' 10부씩을 두 달간 지원해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돕기로 했다.

박 교장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폐교를 앞둔 상황에서도 지역의 관심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현장은 설렘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새 캐리어를 뽐냈고, 짐칸 번호표를 확인하며 스스로 짐을 배치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절차도 차분히 해냈다.

버스 앞에서는 혜도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연신 손을 흔들며 아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했다. 아이들도 즐겁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작은 학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교생 캐리어 행렬'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경험을 남겼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폐교 소식을 접한 뒤부터 마음 한쪽에 오랜 아쉬움이 남았다고 전했다. 스님은 "선원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던 모습을 보고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던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일상과 함께해 왔다. 오랜 세월 이웃으로 지내온 터라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매우 안타깝고, 아이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애잔해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지막 수학여행 준비 과정에서 캐리어가 필요하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고 주저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혜도 스님은 "아이들이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니만큼 불편함 없이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해 훗날 사회와 국가를 이롭게 하는 인재로 자라 주기를 기도한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학교를 거쳐 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선원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국선원 "일상서 계율 실천하는 불자의 삶" 다짐

삼귀의·오계 합동수계법회
11월 23일…500여 명 동참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스님)이 11월 23일 부산 본원 법당에서 전국 분원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의·오계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세종 분원을 비롯해 진주 미륵암, 창원 우곡사, 부산 대원사, 부산 무진선원, 가야 안국사, 시원암, 율하선원 및 안국법인 직원 등 각 지역에서 정진해 온 불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계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전계사 범석 수불 대종사는 이날 법문에서 "계율은 억누르는 규범이 아니라 나와 가족,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전(福田)"이라며 계의 본질을 설명했다. 이어 "계는 지키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남을 위해 베푸는 힘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곧 수행이 깊어지는 길이며, 불자의 삶이 넓어지는 길"이라고 설했다. 또 "인연 따라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수행과 계율의 덕목"이라며 "오늘 이 수계는 각 가정에 복덕이 자라고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큰 발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회에는 세종 분원 신도들의 참여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세종 분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살계·오계 수계를 이어 오며 정진해 왔으나, 올해는 본원에서 처음으로 수계에 동참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세종 분원에서 참가한 박미현(법명 보림) 불자는 "이렇게 본원에 와서 큰 스님을 뵙고 여러 도반과 함께 받으니 더 감동적이고 뜻깊다"며 "처음 부산 안국선원에 온 분들도 규모와 법회의 분위기에 놀라워했고,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법회는 수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수불 스님은 "오늘의 이 인연이 각자의 수행을 단단히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해인사승가대 총동문회장에 동진 스님

11월 24일 정기총회 개최
승가상 시상·장학금 전달



법보종찰 해인사승가대학 제23대 총동문회장에 동진 스님(칠곡 망월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1월 24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불기 2569(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총동문회장에 동진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동진 스님은 "동문회가 수행 인재 양성과 승가교육 발전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며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 화합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해인승가대상은 동명 스님(15기)이, 해인승가상은 도오(19기)·원천(20기)·경암(37기)·원당(38기)· 혜공(46기) 스님이 수상했다.

(재)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 스님)가 주관한 장학기부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해인승가대학 재학생 20명과 우수 졸업생 2명, 일반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또 승가대학장 원걸 스님에게 해인승가대학 교수진을 위한 연구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학성 스님은 장학회에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부산·아름누리 '잡곡 나눔'

11월 23일 개금종합복지관
총 220세대에 각 3.2kg씩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과 사단법인 아름누리(이사장 홍순창)는 11월 23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의 잡곡 나눔' 행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잡곡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이용자 128세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용자 80세대, 사회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12세대 등 총 220세대에 각 3.2kg씩 전달됐다. 이날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200만원, 아름누리 봉사단은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불련 부산지부 "청년 불교 도약" 발원

11월 23일 범어사서 연합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 이하 대불련 부산지부)는 11월 23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부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10개 대학에서 50여 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석해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지도법사인 범어사 사회국장 법진 스님은 "대불련 부산지부는 범어사와 함께 정진·수행·봉사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기 연합법회뿐 아니라 겨울캠프, 타종식, 3보1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역사 속 한국비구니
1700년 한국 비구니사를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밝히고,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복원한 책
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 집필 전영숙 | 450쪽 | 35,000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최초 비구니 선사禪師 '일엽'으로!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임종게

금산도영, 나고 죽음은 애초에 없더라.
나 여기 앉았거늘, 나 여기 앉아 있거늘
억만 겁 헤아릴 수 없는 세월과 아득한 미래는 흘러가는 대로 둔다 해도, 나는 여전히 여기 그대로 앉아 있네.
나고 죽는 무수한 길을 꿈결처럼 오갔고, 꿈속에서도 환인 줄을 일찍이 알았도다.
바람과 구름의 조화는 몇 번이고, 변한 것은 또 몇 번을 지냈던가.

金山道永 本無生死
我坐於此 我坐於此
億萬劫算不盡 未來際任其流 吾猶端坐於此
生死往返無量 夢中曾見如幻
風雲造化屢遷 其變幾度經乎

“도영 대종사의 지혜와 자비, 영원히 피어오를 것”

금산당 도영 대종사 영결 · 다비
11월 24일 금산사 일원서 엄수
진우 스님 “포교의 등불 잇겠다”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금산사 조실인 금산당 도영 대종사의 영결식이 11월 24일 금산사에서 엄수됐다.

한평생 포교와 전법의 길을 걸었던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금산사 조실 금산당 도영 대종사의 영결식이 11월 24일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됐다.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 영결식에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도영 대종사의 법체는 비록 떠났지만 남기신 가르침은 세세생생 이어질 것이며, 이별의 슬픔보다는 적멸의 기쁨을 찬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원 상월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종사의 지혜와 자비의 향연은 영원히 피어오를 것이며, 그 불꽃은 후학들의 길을 밝혀주는 샛별이 될 것”이라며 “대종사시여! 허공에 두루 하시어 법계의 중생을 제도하고 종문의 등불로 다시 나투소서”라고 애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언제나 미소 머금은 얼굴, 자애로운 음성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신 대종사께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고락을 나눈 보리살타의 화현으로 오늘의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남기신 공덕과 원력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진정한 법석”이라며 “대종사께서 일생을 걸어 밝히신 포교의 등불은 이제 남은 대중의 서원이 돼 한국불교를 더 깊고 넓게 펼쳐나갈 원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일 평상 대종사는 문도추도문에서 “대종사님은 참으로 온화한 자비보살이셨다. 포교의 일선에서 불교의 지평을 넓히고 방편을 다양하게 하신 공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대종사님! 부디 적멸의 즐거움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반야도량을 함께 일구는 보리행자로 저희 곁에 돌아오소서”라고 말했다.

상좌 영진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수행과 원력, 가람수호에 평생을 바치신 스님을 이제는 따뜻하고 정중하게 모셔드리고자 한다”며 “남은 것은 제자들의 몫이다. 스님의 원력에 따라 수행과 전법도생, 가람수호에 더더욱 매진하겠다. 전국 각처에서 찾아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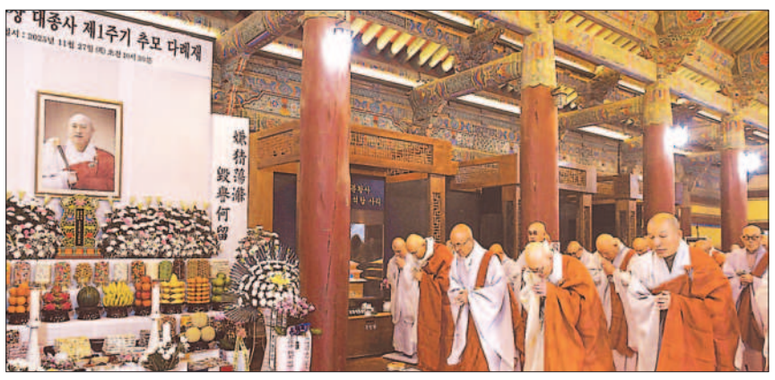
영결식 후 도영 대종사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우고 오색만장과 위패, 영정 뒤로 이어진 사부대중의 긴 행렬을 따라 금산사 모악산 수목의 배웅을 받으며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는 ‘스님! 불들어 갑니다’는 소리와 함께 오열하는 사부대중을 뒤로하고 붉은 불기둥과 함께 모악의 품으로 돌아갔다.

앞서 11월 20일 원적 소식이 전해진 후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는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11월 21일 분향소를 찾아 ‘풍타기랑(風打起浪) 풍정시수(風靜是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고요하면 본래가 드러난다’는 조문 글을 남기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금산당 도영 대종사의 49재는 1·2·3·5·6재는 완주 송광사, 4재는 대전 죽림정사, 7재는 금산사 대웅보전에서 거행된다.

종상 대종사 1주기 “낮추고 비운 큰 어른”

11월 27일, 불국사 무설당서
종단 발전 헌신 발자취 기려



불국사는 11월 27일 경내 무설전에서 ‘대궁당 종상 대종사 1주기 다례재’를 봉행하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렸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공덕을 찬탄하며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불국사(주지 종천 스님)는 11월 27일 경내 무설전에서 ‘대궁당 종상 대종사 1주기 다례재’를 봉행하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렸다.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삼천사 회주 성운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교구장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과 내빈 스님들이 참석해 종상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종사께서는 늘 낮추고 비우며 묵묵히 불교 교단과 사부대중을 받쳐주신 참된 어른이셨다”고 회고하며 “평소 대종사께서 격려하고 후원해 주신 선명상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인연 따라 흐르는 모든 존재가 마음의 안심처를 찾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어 종상 스님의 생전 원력을 기리며 홍순지 명상음악가가 ‘금오철천비(金烏徹天飛)’를 주제로 추모가를 불렀다. ‘금오철천비’는 종상 스님의 열반송 ‘혐시탕척 훼예하류 초연탈생사 금오철천비(嫌猜蕩滌 毁譽何留 超然脫生死 金烏徹天飛)’의 의미를 담아 작사·작곡된 노래다.

문도대표 성행 스님은 “홀연히 떠나신 스님을 생각하면, 단풍이 물드는 가을빛 속에서 그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며 “바람에 흔들림 없는 도량의 기둥처럼,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는 평생을 수행·교화·종단 발전에 헌신하며 불국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행정과 포교, 문화·복지 사업을 이끌어 온 대덕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장으로 남북 불교교류에 앞장섰고, 동국대 이사, 불국사복지재단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겼다.

경주=하성미 기자, 사진=김선행 대구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의 쌀 전달

서구청에 쌀 2000kg 기부…16년째 지원 이어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은 11월 24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쌀 2000kg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사진〉



서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광주지원 신도회 최성휴 고문, 문원진 회장, 최광숙 여신도부회장, 전재성 부회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문원진 신도회장은 “풍요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오늘 나눔이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이강 청장은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서구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1996년부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과 자비의 쌀 전달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낙화의례 기원·전개 고찰 학술대회

11월 21일, 세종청사서



불교의례문화연구소와 불교무형문화연구소는 11월 21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불교 낙화법의 기원과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낙화법보존회 이사장 환성 스님은 대회사에서 “낙화법은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자기 정화와 수행 정신을 담은 불교 의례”라며 “낙화법의 역사적 뿌리와 의례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낙화 의례의 구조와 역사, 신앙적 기반을 정리하는 자리”라며 “낙화법이 세종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창 선운사, 제1회 단기출가학교 성료

11월 21~30일, 11명 입교
“깨달음 문에 들겠다” 발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주관한 ‘선운사 제1기 단기출학가교 쉼, 그리고 시작’이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30일 회향했다.〈사진〉

선운사 단기출가학교는 11월 21일 입재식에 남자 6명, 여자 5명 총 11명이 입교했다. 부모님 동의하에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참가한 15세 학생부터 66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동참했다.

고불식에서 주지 경우 스님은 “단기출가학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의 길”이라며 “오늘의 첫 발걸음이 여러분 삶의 길 위에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출가란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서겠다는 서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는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원력으로 종단은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 언제나 따뜻한 인연이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최고령자인 오동섭 불자가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법을 만나 마음을 돌이키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 수행의 길로 나아가고자 발심했다”며 “이 발심이 더욱 굳어지고 수행의 인연이 무르익어 깨달음의 문에 들게 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사로 실제 출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지흥 불자는 “단기출가기간 동안 집착을 끊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출가학교 기간 동안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사찰예절, 발우공양, 선명상, 예불습의 등을 익히고 부처님의 생애와 〈초발심자경문〉 등을 배우며 수행자의 생활을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비구니회, 장병 위한 ‘특별 음악법회’

11월 23일 호국관음사서
음악 · 사찰음식 체험 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1월 23일 호국관음사(주지 균재 스님)에서 31사단 신병교육대 장병 200여 명을 초청해 음악과 사찰음식, 레크레이션이 결합된 ‘특별 음악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전국비구니회가 추진하는 ‘전국 비구니 군승 법회 지원 및 미래불자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균재 스님은 인사말에서 “더 재미있고 활기찬 포교 활동으로 군 생활에 힘이 되는 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음악법회에서는 앙상블 ‘블루 로터스’가 찬불가부터 K-팝, 클래식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해 장병들을 사로잡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총화종, 총본산서 종단 혁신 로드맵 논의

11월 25일, 이사회 등 개최



(사)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1월 25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에서 종단 혁신로드맵 마련을 위해 법인 2차 임시 이사회, 95차 중앙종회, 제1회 비구니회 임시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총본산 불사의 주요 경과가 보고됐고, 이사들은 종단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종단은 오늘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승가 구성원의 역할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도선언 새기자” 경남포교사단 결집대회

11월 22일, 표창 · 감사장 수여



조계종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이원환)이 11월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포교전진대회’를 열고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사진〉

이원환 경남지역단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는 한 해 동안 불법 홍포를 위해 힘쓴 포교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선명상 생활화와 전문포교사 양성 등 종단 정책에 발맞춘 노력을 소개하며 “2026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중부총괄팀 김수연 포교사가 전법상, 불교문화해설 심우팀이 우수상, 중부불교문화풍경팀 및 김종석 포교사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동부지역 광명팀과 동부교정교화팀 포교사들에게도 표창장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강원 절터서 나온 불교유산을 만나다

국립춘천박물관 새 상설관 개관
'강원 불교미술' 브랜드화 '눈길'
흥전리, 선림원지 등 발굴 유물
불교문화유산 30건 상설전시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부터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까지 강원 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이 문을 열었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은 "11월 25일부터 상설전시실 브랜드2 '강원의 불교미술, 깨달음을 찾는 길'을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상설전시실 브랜드2는 강원도 금강산·원주·평창·양양·삼척 등에서 발견된 불교공예품과 불교조각 30건 31점을 전시해 불교의 깨달음의 진리로 향해 가는 길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앞서 국립춘천박물관은 2019년 상설전시실 브랜드1 '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전시실은 불교공예품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구로서의 기능과 보살상과 불상과 같은 불교조각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미술품으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전달한다.

전시는 제1부 '불교공예-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구'와 제2부 '불교조각-보살과 부처, 깨달음의 형상'으로 나뉜다. 특히 상설전시실 브랜드2에서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새로 소장되거나 새로운 기법으로 전시한 불교유산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삼척 흥전리사지 '청동정병' 2점과 극락에서 사는 가릉빈가 새 문양으로 장식된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6점이 국립춘천박물관에 처음 전시된다.

홍천 물걸리사지 '부처 얼굴 조각'은 얼굴 길이만 30㎝ 이상일 정도로 큰 철불의 일부이다. 2020년 국립춘천박물관은 3D 모델링 기법으로 불상의 얼굴 형상을 만들고 각 조각의 위치를 파악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각들을 처음으로 세워 전시함으로써 실제 불상 얼굴 모습을 추정하고 입가에 머금은 아름다운 미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물로 지정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1000년을 묻혀 있던 금동보살입상은 흙과 청동녹을 걷어 내고 제모습을 찾았다.

세밀한 용 문양 표현과 형태로 15세기 종으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 '유점사 종'에 양각된 범자(梵字) 40자의 의미를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주목했다. 해당 범자는 비밀스러운 주문인 진언으로 지옥을 깨트리는 긴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과 짧은 '파지옥진언', 관음보살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다. 진언의 음과 뜻을 영상으로 만들어 지옥까지 종 소리를 울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종의 기능을 부각시켰다.

금강산에서 발굴됐다고 전해지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18.6㎝로 크기가 작으나 얼굴과 신체 표현, 귀걸이와 팔찌 같은 장신구 표현이 세밀한 수작이다. 전시에서는 뛰어난 조각 기법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보살의 이미지를 55인치 크기의 모니터로 제공한다.

AI 기술로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보물)을 금빛 찬란한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한 영상이 전시실에서 상영된다. 2015년 발굴 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이 보존처리를 하고 광배 편 위치를 맞추어 보살상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결손 부분을 채우고, 부식된 부분의 금빛을 되살렸다.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은 "2019년에 신설한 브랜드 1 '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번 브랜드 2 '강원의 불교미술-깨달음을 찾는 길'은 부처가 무엇을 깨달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며, 깨달음의 세계는 어떠한지를 깊이 탐색하고자 했다"면서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보면서 마음의 고통과 마주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의 평온을 맞이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⑳ 탐(貪)



붓다는 탐욕·분노·어리석음을 '독'이라 하여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라 불렀다. 이는 다른 번뇌보다도 청정하고 밝은 생명력에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삼독 가운데 첫 번째는 '탐(貪)'이며, 우리가 흔히 '탐낸다'고 말하는 그 탐욕이다.

'탐(貪)'은 '지금'을 뜻하는 금(今)과 '재물'을 상징하는 패(貝)가 합쳐진 글자다. 인류 초기 조개껍데기가 화폐로 사용되던 까닭에 패(貝)는 곧 재화를 의미한다. 지금 눈앞의 이익을 당장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욕의 본질이다. 〈설문해자〉에서도 "탐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라 하였다. 탐욕은 단순한 재물 욕심을 넘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움직임 전체를 가리킨다.

탐욕은 곧 '애착'이다. 권력·명예·재물·인기 등을 붙들고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집착이 탐욕의 모습이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자족하지 못하는 집착, 더 강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루셴카는 막내 알료샤에게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애착의 어리석음을 일깨운다. 악행을 일삼던 한 노파가 죽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천사가 그녀에게 "단 하나라도 선행을 한 적이 있다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 보겠다"라고 묻자, 노파는 예전에 자신의 텃밭에서 뽑은 양파 한 뿌리를 거지에게 준 일을 떠올린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느님은 "그 양파를 붙잡고 불바다를 빠져나오면 낙원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나 양파가 끊어지면 영원히 불바다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천사가 양파를 내밀자 노파는 점점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이 함께 살려 달라며 매달리자, 노파는 "이 양파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뿌리쳤고, 그 순간 양파는 뚝 끊어져 노파는 다시 불바다로 떨어지고 만다.

원효 대사는 〈발심수행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막는 이가 없어도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진·치 삼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유혹하는 이가 없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온갖 욕락을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애착하면 지금 이 삶터가 지옥이요, 놓아 버리고 자족하면 삶은 곧 천당이고 극락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관혼상제 스님 파견 서비스
日불교계 '우려' 목소리 제기

관혼상제 사찰 맡기는 '단가' 약화
스님 파견 서비스 2010년경 시작
시장 확대에 상업화·평판 악화

관혼상제를 사찰에서 주로 진행하는 일본에서 '스님 파견 서비스'가 등장해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20일 일본 '교토신문'은 스님 파견 서비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일본은 집안 묘소와 제사를 특정 사찰에 대대로 위임하는 '단가(檀家)' 제도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근래 '사찰과 인연을 맺고 싶진 않지만, 관혼상제는 맡기고 싶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스님을 파견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인터넷을 통한 스님 파견 서비스는 2010년경 시작됐다. 담당 스님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의 법요를 봉행하면 이용자가 보시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기존의 단가 제도로 제도에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의 이용이 늘면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찰 측에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특히 기존의 마을 공동체와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면서 점점 단가에서 이탈하는 소위 '사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기적인 보시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암에서 호응이 높다. 파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단가가 생겼다는 사례도 있다.

교토신문 보도에 따르면 8년간 파견 서비스를 나가고 있는 한 스님은 "사실상 업체에서 책정한 보시금이 낮고, 업체 중개료가 절반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여유 시간에 출가자로서 법요를 봉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교식 전통을 따르고 싶다는 사람들의 신심에 응할 수 있다는 보람도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스님들이 직접 파견 서비스 업체를 설립한 사례도 생겨났다. 스님이 설립한 업체는 지역과 종단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찰이 제휴를 맺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커짐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시금 할인 행사나 가격 비교 경쟁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업체 운영 방식과 파견 스님의 자질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

교토의 한 사찰 주지로 파견 서비스에 등록한 스님은 "한 업체의 경우 마치 콜택시처럼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찰 소임을 맡고 있는 출가자라면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견 방식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스님은 "이대로는 파견 스님의 자질을 신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한번 평판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불교계 전체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스님은 "파견요청 대부분이 장례식에서의 시다림이나 천도재, 기제사와 같은 상장례"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여법한 법요가 아닌 상조회사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장례불교'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관혼상제에 스님을 파견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상업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교토신문



현시대에 맞게 되살린 붓다의 가르침!
불교 이후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가 전통적인 불교 해석을 넘어 우리 시대, 현시대에 맞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신국판, 532쪽, 값 30,000원

업과 윤회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데, 다양한 경전과 설화를 인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옮김, 신국판, 256쪽, 값 18,000원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 신국판, 384쪽, 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둔사 아미타부처님서 最古 복장발원문 나왔다



보물로 지정된 구미 대문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에서 가장 오래된 발원문이 수습됐다.

구미 대둔사, 연구결과 보고회
동국대 문화유산硏 연구 조사
건칠아미타상 수습 복장물 조명
1295년 조성 기록 발원문 확인
현존 건칠불 중 '最古' 확인돼
구미시 "국보 지정 노력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방세계의 보신불[報佛] 중에서 비(悲)·원(願)이 가장 크신 분은 아미타불이 첫째이십니다. 이에 우리 빈도(貧道)들은 간절한 믿음과 정성을 내어 아미타불 1구를 빚어 만들고…"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이하 건칠아미타상·보물)에서 수습된 3건의 복장발원문 중 하나인 '득악사당주미타대성복장발원문'의 내용 중 일부다. 득익사(得益寺)는 현 대둔사의 전신으로 당시 발원 동참자들의 절절한 불심(佛心)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특히 해당 발원문은 '원정원년팔월일(元貞元年八月日)'이라는 작성 일자가 쓰여 있어 1295년(충렬왕 21) 8월에 불상의 복장에 납입됐음을 알 수 있다. 일련의 복장발원문들은 "단순히 건칠아미타상의 조성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 불상이 봉안됐던 득익사의 역사와 조성 발원 구성원들의 신앙 모습에 대해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최연식)"다.



구미 대둔사는 11월 27일 고궁박물관 별관 대강당에서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과 발제자들의 기념촬영.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에 모셔져 있는 건칠아미타상에서 수습된 복장물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둔사는 11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대강당에서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유산연구소가 주관했다.

보고회에서는 2024년 개금 불사 과정에서 수습된 복장물에 대한 연구 전반 결과들이 소개됐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가장 긴 분량의 '득악사당주미타대성복장발원문'이다. 전체 100행 2409자인 장문의 발원문에는 후면에 100명의 발원자와 동참자의 성명과 작성 일자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1295년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상의 조성과 중수, 그 의미'를 발표한 임영애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교수는 해당 복장발원문의 발견을 통해 "'대둔사 건칠아미타상'의 조성시기가 1295년으로 밝혔다. 이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건칠불"이라며 "아울러 삼국·통일신라·고려를 통틀어 불상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임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건칠불은 국내외를 모두 합쳐도 2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례가 희귀하며 조성 유행 시기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라는 특정시기에만 집중돼 있었다. 또한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사례도 드물어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 조사를 통해 건칠불 연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임 교수는 "대둔사 건칠아미타상의 제작 시기가 분명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고려 후기 및 조선 초 불상들의 조성시기를 추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구미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둔사 부처님 복장발원문을 접하는 순간 큰 감동이 있었다. 그 큰 발원과 간절함을 제가 이 시대에 이어서 어떻게 수행할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며 "귀중한 발원문이 있는 건칠아미타상에 잘 모시며 아미타부처님의 큰 원을 이어가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구미시를 대표해 참석한 정성현 구미 부시장은 건칠아미타상의 국보 승격·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정 부시장은 축사에서 "대둔사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주요 사찰 중 한 곳으로 대둔사에 모셔진 건칠아미타좌상은 중요한 구미의 불교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가장 오래된 복장발원문이 나온 만큼 구미시에서도 국보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만나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장엄물

석탑 상륜부 보존처리 완료돼
월정사 성보박물관 공개 전시

환경적 요인으로 부식이 심각했던 국보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금속장엄물이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됐다.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금속장엄물에 대한 보존처리가 완료돼 11월 25일부터 박물관에 공개 전시된다"고 밝혔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예로부터 깊은 공경과 경탄의 대상이었다. 고려 후기 문신 정추는 "자장율사께서 지은 옛 절에 문수보살이 머무니, 탑 위에 천 년 동안 새가 날지 못한다"고 읊으며 탑의 성스러움을 노래하였다. 또한 1687년 월정사를 찾은 정시한은 〈산중일기〉에서 "법당 앞 구층석탑은 기이하고 신령하여 마치 하늘이 만든 것 같다"고 기록하며 당시 선비들에게 월정사 탑이 인간의 솜씨를 넘어선 '하늘의 탑'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 선비마저 사로잡았던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아름다움은 탑 상륜부 금속장엄물에서 절정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2019~2024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오랜 세월 누적된 환경적 요인으로 탑 상륜부의 심각한 부식이 확인됐고 금속장엄물은 분리 보존조치 됐다.



보존처리를 완료한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11월 25일부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공개됐다.

이에 2024년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들의 전통 기법으로 새 상륜부 금속장엄물이 복원·설치됐고, 본래 금속장엄물은 서진문화유산(대표 김선덕)에서 장기간의 보존처리 완료 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

이번 보존처리와 전시를 통해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의 구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측에 9층 옥개석과 상륜부의 노반(露盤)·복발(覆鉢)·앙화(仰花)·보륜(寶輪)은 석재이며, 보개(寶蓋)·수연(水煙)·용차(龍車)·보주(寶珠)·찰주(擦柱)는 금속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측은 "상륜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탑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상징적·종교적 기능을 가진 요소"라며 "상륜부의 장식 표현은 부처의 지혜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적 성격일 지니는 중생계(인간세계)와 초월계(열반)을 연결하는 상징구조"라고 설명했다.

석탑을 장엄하였던 금속 장식물은 고려시대 금속공예 기법인 단금·단조·주물·조각·아말감 도금 등이 총 망라된 고려 시대 최대·최고의 공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금속장엄물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보개와 수연은 동판에 조금(彫金), 타출(打出), 선조(線彫), 어자문(魚子文) 등의 조각기법을 가미하여 구름, 산, 연꽃잎, 여의두무늬 등을 새기고 표면에는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을 입혔다.

박물관 측은 "이번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금속장엄물 공개를 통해 지난 1000여 년간 탑 아래에서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금속장엄물의 세부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면서 "제작 과정에서 남은 흔적, 고려 시대 수리흔적, 1970년대 보수 당시 황동판을 용접해 덧댄 보개 꽃무늬 장식 등 보존처리의 역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고려 시대 최고의 금속공예품인 금속장엄물이 오랜 보존처리 끝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관계기관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유식·불전 수용…대행 선사 사상을 조명하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오는 12월13일 안양본원서
연구원 2명, 주제발표 참여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계절발표회는 대행선연구원의 두 전문 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대행 선사의 사상 천착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유식의 삼신불 사상과 대행 선사의 법신 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 연구원은 초기 대승의 이신불(二身佛) 이론이 후기 대승의 유식사상에서 정밀한 삼신불(三身佛) 체계로 구조화된 과정을 검토하고, 삼신을 심식 전환이 아닌 일심(一心, 한마음)의 즉각적 발현으로 이해한 대행 선사의 법신 사상을 고찰한다. 부처의 존재를 다면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대행 선사는 삼신불을 교학적 구조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생동하는 불성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 수행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두 번째 주제인 '대행 선사의 불전(佛傳) 수용과 법수(法數)'를 발표하는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팔상성도'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의 교판에 근거하여 성립했고 선종에서도 그대로 수용됐다는 점에서, 대행 선사가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을 수용하는 양상을 살핀다. 특히 독창적으로 법수를 사용한 대행 선사는 팔상성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8'이라는 숫자를 부처님을 상징하는 법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계절발표회 논평자로는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박재용·김은영·이경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나선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한국 괘불 면면 담은 영문 총서 발간

국립문화유산硏 총4권 완간

한국불교 특유 불교회화인 괘불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학술총서가 완간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인 괘불(掛佛)의 지역적 특성과 예술성을 심층적으로 다룬 영문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The Beauty of Korean Gwaebul)〉 총 4권 전집을 완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펴낸 〈한국 괘불의 미〉 영문판.

앞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현재 전해지는 120여 점의 괘불 가운데 국보·보물로 지정된 63점에 대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심층 조사와 미술사적 분석 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해 총 4권의 국문판 〈한국 괘불의 미〉를 발간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영문판 1편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2~4편을 선보이게 됐다.

올해 발간된 2권(전라지역)에는 15점의 괘불과 초본 1점이 실렸다. 전라지역에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 괘불인 〈죽림사 세존 괘불탱〉(1622)을 비롯하여 초창기 괘불들이 전하고 있다.

3권(충청지역)에는 15점의 충청지역 괘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충청 지역은 많은 인물들을 그린 군도(群圖) 형식의 석가모니 괘불이 많아서, 초창기 괘불이 부처님을 단독으로 묘사한 독존도(獨尊圖)보다는 군도 형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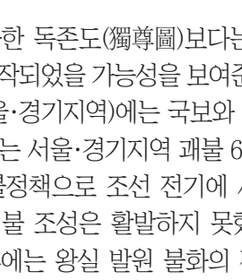
4권(서울·경기지역)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 괘불 6점을 수록했다. 억불정책으로 조선 전기에 서울·경기지역의 괘불 조성은 활발하지 못했으나, 19세기 이후에는 왕실 발원 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수준 높은 괘불이 활발히 조성됐다.

영문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는 국외의 한국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내 '괘불 갤러리'에서 국가지정 괘불의 고화질 사진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영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송현주 교수, 불교평론 뇌허학술상 수상

12월 18일 동국대동창회관서 시상식



2025년도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송현주 교수를 결정했다. 수상저술은 〈한국불교, 근대종교로 태어나다〉이다"라고 밝혔다.

송 교수의 저작 〈한국불교, 근대종교로 태어나다〉는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탄생한 '종교(religion)' 개념이 동아시아에 도입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근대적 '종교'로 재편되는 경로를 탐구한 역작이다.

심사위원회는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학을 하는 수상자는 우리 불교의 근대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개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서 "한국불교를 근대종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수상자의 역저는 21세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찬했다.

송 교수는 "이번 상은 저의 연구 인생에 커다란 격려가 됐다. 이 책의 성과에 비해 이처럼 큰 상이 주어진 것은, 더욱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부족한 이 저서를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신 것만으로도 연구자로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제 책을 평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 동국대 동창회관 5층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6~12/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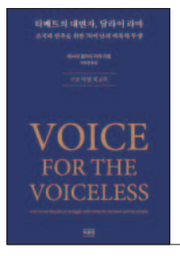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조계종출판사
2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원조 각성	비움과소통
3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5	육조단경	김현준	효림
6	AWAKENING	VEN.POMNYUN SUNIM	정토
7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8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효림
9	붓다의 명상법	이자연	소명출판
10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극락의 경전	한보광 옮김	민족사
2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운주사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5	수행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6	법구경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체계불학	김성철	오타쿠
10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침묵을 깨운 자비의 증언



티베트의 대변자,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지음
안희준 옮김
하루헌 / 3만원

말 못 하는 이들 대신한 목소리
망명정부 수립 과정 첫 공개
"폭력보다 강한 자비" 증명
분열·갈등 우리 사회에 메시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4살에 가족의 품을 떠난 소년은 열여섯 살에 전쟁을 맞닥뜨렸고 스물다섯에 망명을 택한 이후 75년에 걸쳐 비폭력을 실천하고 있다.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의 구순(九旬) 기념 회고록 〈티베트의 대변자, 달라이라마〉는 억압받는 공동체를 대신해 침묵을 깨뜨린 '양심의 기록'이다.

달라이라마는 책에서 왜 비폭력을 선택했는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뇌와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진솔하게 보여 준다.

책은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침공에서 시작한다. 열아홉 살의 달라이라마가 마오쩌둥과 마주한 베이징 회담, 1959년 인도로 탈출한 망명 과정, 다람살라에서의 망명정부 수립과 교육·종교 체계 재건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 지도부와의 협상 과정과 17개 항 협정을 둘러싼 압박, 해외 정부와의 접촉 등 당시의 내밀한 고민이 포함돼 있어 현재 티베트 문제를 이해하는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개인사와 정치·외교, 문화적 결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달라이라마는 자신과 공동체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기록한다.

달라이라마는 책 전반에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한다. 폭력과 억압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대, 왜 대결이 아닌 비폭력을 택했고 어떤 대안과 갈등 속에서 결단을 내렸는지를 서술한다.

후반부에서 달라이라마는 환생 체계에 대해 "제도의 존속 여부는 티베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달라이라마는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구순 회고록인 이 책에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 지도부와의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사진은 중국 북경에서 열린 티베트 설날 기념행사. 왼쪽부터 저우언라이 총리, 판첸 라마, 마오쩌둥 주석, 달라이라마, 류사오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하루헌**

회고록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언어·문화 상실의 위험, 티베트 고원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 디아스포라 2·3세대의 정체성 위기 등 현재의 위기들을 진단한다.

5권째 달라이라마 책을 펴낸 배정화 하루헌 대표는 "이 책은 가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수행자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이는 분열과 갈등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을 옮긴 안희준 번역가는 달라이라마 한국어판 공식 홈페이지 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문의 의미와 어조를 섬세하게 전달했다.

달라이라마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조국에서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평생 애써 온 저의 노력이 이 책에 담겨 있다"며 "이 책이 티베트 민족의 자유를 향한 여정, 그리고 비폭력과 대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 경전"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

대상 〈역사 속 한국비구니〉 수상
불서읽기모임 2곳에 독자상 수여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는 11월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및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윤창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출판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 권의 불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경전"이라며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불교출판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병두 심사위원(종교평화연구원장)은 "대상 수상작인 〈역사 속 한국비구니〉는 내용이 탄탄하고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분의 원력이 더해진 책"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의 집필자 중 한 명인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앞으로 이 책이 비구니 승단 관련한 문학 작품과 영화, 미술 등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한길번역상은 〈유식이십론〉(강형철·유리·구미숙 역주, 씨아이알), 붓다북학술상은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한지연 지음, 동국대출판문화원), 보덕전법상은 〈붓다의 수첩-담마〉(성찬 스님 지음, 수류산방)가 수상했다.

입선에는 〈거룩한 불편〉(유정길 지음, 모과나무), 〈바위에 새긴 미소〉(문영숙 글, 김태현 그림, 현암주니어), 〈일단 앉아볼까요〉(페마 초드론 지음, 한문화),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리타 그로스 지음, 운주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독자상'은 불서 읽기 모임 '붓다와 함께 떠나는 책 여행'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책 읽기 소모임 '보리수아래'에게 주어졌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후회 없는 삶을 위한 56개 문답



죽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준식 지음
중앙북스
1만9000원

국내 죽음학 연구의 선구자인 저자가 56개 문답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풀어냈다.

그간의 저서가 '죽음학' 학술서였다면 이 책은 대화록에 가깝다. 자살, 인간관계, 종교, 유교문화, 마음공부 등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인 다양한 주제'를 독자와 대화하듯 담담하게 들려준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이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전한다. 저자는 말한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가장 깊이 공부하는 유일한 길이다."

삼국통일 현장에서 읽은 화쟁사상



나당전쟁과 문무왕
황윤 지음
책읽는고양이
1만9800원

7세기 신라 문무왕은 최강국 당나라에 맞서 협력과 대립이라는 양날을 국익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나당전쟁 승리와 삼국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 점령에 이어 나당전쟁 승리에 이르기까지를 그려 내는 이 책은 나당연합군의 집결지였던 덕적도와 연천 호로고루성, 파주 칠중성 등의 현장을 찾아 역사를 그려 낸다. 또 대립과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고자 했던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살핀다. 저자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적 도약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지금이, 나당전쟁 승리의 역사를 재인식할 적기라고 말한다.

미래 교육을 위한 선택과 희망



위선자가 되지 않는 법
아담 스위프트 지음
곽덕주 외 옮김
살림터
1만9000원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한다. '맹모삼천지교'는 이러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한편, 우리 교육 현실을 꼬집는 비유로 쓰인다.

영국의 정치철학자인 아담 스위프트는 이 책에서 교육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에 있으며 그 모순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 준다.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욕망과 그 양상을 솔직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공교육의 현실에서 '각자 그리고 다 같이' 바른 선택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경쟁이 이념이 되고 욕망이 미덕이 된 시대,
붓다와 공자가 남긴 지혜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무기가 된다!

참회(懺悔) — 자성(自省)
항상 잘못을 경계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라. 이것이 허물과 불화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업(業) — 실천[行]
한 번 착한 일을 했다고 복이 오고,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벌이 오지는 않는다.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나타난다.

중도(中道) — 중용(中庸)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모두 치우친 것이다. 균형 잡힌 태도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방편(方便) — 권도(權道)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삶의 모범답안은 없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원만한 지혜이다.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독법 人生讀法
임종욱 지음
312쪽 | 19,000원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난
〈불교심리학〉
★★
웃음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마음공부, 그 현장의 후기

"쇼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발굴한 기분이에요!" _ oo*****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군요!" _ gr*****
"늦은 시간 잠을 미루며 듣게 되는
명강의입니다" _ c8*
"보만 스님 강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_ el******



★☆★ 화제의 베스트셀러!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 288쪽 |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화두일념 불 속에 들어가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歷劫傳傳無盡燈 (역겁전전무진등)
不曾挑剔鎭長明 (부증도척진장명)
任他雨灑兼風亂 (임타우쇄겸풍란)
漏屋虛窓影自淸 (누옥허창영자청)

오랜 세월 전해도 다함 없는 등불
일찍이 돋우거나 누르지 않아도 밝게 빛나네.
비 오고 바람 불어 어지러운 대로 두니
비 새는 집 빈 창에 그림자는 맑다.

금일의 결제 대중은 결제를 해도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해제를 해도 해제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 티끌 한 점이 눈에 들어가면 헛꽃이 휘날리느니라.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되어 萬魔(만마)와 千佛(천불)을 모두 태워버릴 때 佛祖(불조)의 向上一路(향상일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로다.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施主(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리라.

삼동결제에 동참한 여러 대장부여!

잡다한 세상일을 떠나서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는 일은 上根機(상근기)의 수행자라야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깊은 바다의 큰 고기를 낚는 일과 같도다.

거친 번뇌가 잔잔해지면 미세한 번뇌를 알게 되고 미세한 번뇌가 흩어지면 그대들의 본래면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리라.

본래면목을 확연히 깨닫고 활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일러서 본분사를 마친 大道人(대도인)이라 할 수 있으리라.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으며 범부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족한 본래면목을 찾아 大自由人(대자유인)이 되고 大教化人(대교화인)이 되는 일은 불조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고 단월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리라.

天產英靈六尺軀 (천산영령육척구)
能文能武善經書 (능문능무선경서)
一朝識破孃生面 (일조식파양생면)
方信閑名滿天下 (방신한명만천하)

하늘이 뛰어난 육 척의 몸을 낳으니
문무도 능하고 경서도 잘하도다.
하루아침에 본래면목을 아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 천하에 가득함을 알겠노라.

마음이 주인 되는 근본의 길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



冬嚴一念起(동엄일념기)
雪路步禪行(설로보선행)
願斷群迷惑(원단군미혹)
同證本來明(동증본래명)

혹한의 겨울 속에서 한 생각 서원을 일으키니
눈 덮인 길을 걷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온갖 미혹과 어둠을 끊어낼 것을 서원하니,
모든 존재가 본래 밝음을 증득하기를 바라노라.

해마다 찾아오는 차가운 겨울, 수행대중이 다시 한 번 삼보 앞에 몸과 마음을 모아 동안거 결제를 맞이하니, 참으로 장구한 불조의 혜명이 이어지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안거는 세속의 분주함을 멀리하려는 피정(避靜)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래성품을 밝히기 위해 보다 깊이 뛰어드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수행자는 이 시기에 비로소 본래마음과 마주하고, 허망한 분별과 망상을 녹여내어 무명(無明)의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모든 법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거 수행은 밖에서 무엇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근본의 길입니다.

좌선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 하나를 꿰뚫어 보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드러나는 진실한 자성을 관조할 때, 비로소 수행자는 유정 무정의 법문을 체득하게 됩니다. 성성(惺惺)하면서 적적(寂寂)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참된 해탈의 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혼탁하고 변동이 심하여, 사람들의 마음 또한 쉼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수행대중의 한 생각이 곧 세간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동안거는 단순한 정진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수행자는 깊은 선정 속에서 지혜를 밝히고, 그 지혜는 다시 중생을 향한 실천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태고종의 수행전통은 옛 조사들이 추구했던 그대로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행을 펼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회대중에게 이릅니다.

결제에 임하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성불의 관문입니다. 혹한의 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수행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기운 속에서 더욱 단단히 결심하고,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자의 걸음입니다. 부디 이번 동안거가 각자의 번뇌를 녹이고, 온 세상을 밝히는 수행의 근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香霧寒林開覺路(향무한림개각로)
心燈夜寂照眞空(심등야적조진공)

향기로운 안개가 겨울 숲에 드리워지니 깨달음의 길이 열리고,
고요한 밤 마음의 등불이 켜져 참된 공성을 비추도다. 頲

줄 없는 거문고를 타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佛記2569年 乙巳年 十月 十五日
冬安居 結制法語

陞座 拄杖三下云 會麽?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 치고]
아시겠습니까?

即下契合頓悟證 佛租踏路破賧出
木人塵裏昇蓮宮 石女嶺彈沒絃琴
즉하에 계합해서 물록 깨달아 증득하면
불조가 밟은 길을 파하여 뛰어나리라
나무사람은 티끌 속에서 연꽃 궁전에 오르고
돌여자는 고갯마루에서 줄 없는 거문고를 탄다.

今日 時會 四部大衆 還知麽?
금일 시회 사부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할진댄 다시 이르겠습니다.

지혜 바다의 주장자는
혹 금강왕보검을 짓고
혹 땅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지으며
혹 낚싯대와 풀잎의 그림자 탐색을 짓고
혹 주장자 쓰는 것은 짓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도리어 알았는가?
만약 안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음이라.
나고 없어지며 거두고 펴서 종횡으로 응해 쓰니.
만약 서로 알지 못한다면 해 가운데 도망가는 그림자와 같다.
아시겠습니까?

고인의 언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스님이 어느 날 공양이 늦어지자 발우를 들고 당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설봉스님이 밥을 짓다 보고 이르되 "저 늙은이가 종도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는고?" 하니 덕산스님이 문득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설봉스님이 암두스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암두스님이 가로되 "대소 덕산이 말후구를 알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덕산스님이 이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스님을 오라 하셔서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니, 암두스님은 덕산스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덕산스님은 그만두었습니다.

덕산스님은 다음날 승당에 올라와 과연 전날과 같지 않게 늠름한 큰 위용을 드러내 보이니, 암두스님이 승당 앞으로 와서 손벽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저 늙은이가 말후구를 알았네. 그런데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덕산스님은 정말 3년 만에 입적하였습니다.

修德寺 惠庵스님께서는 이 巖頭密啓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巖頭密啓 眼不見耳不聞
암두밀계의 의지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한다.

仁川 龍華寺 田岡스님께서는 巖頭密啓의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千聖不識 我亦不識
천명의 성인도 알지 못하니
나 또한 알지 못한다.

性徹方丈스님과 香谷祖室스님 두 분께서는 巖頭密啓의 의지는 末後句에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성철스님께서는 "如何是末後句인고?" 하시고는, 禪門拈頌 1179 護國禪師의 本心에 대해서 답한 偈頌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犀因翫月紋生角 象被雷驚花入牙
물소가 달구경하러 나왔는데 뿔에 문채가 나고, 코끼리가 우레에 놀라 입을 벌리니 어금니로 꽃이 들어간다.

香谷祖室스님께서는 역시 염송에 있는 雪竇顯선사가 답하신 末後句 偈頌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只許老胡知 不許老胡會
다만 노호가 知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노호가 會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산승은 덕산탁발에 대해 살펴보건대 덕산스님이 末後句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
덕산, 암두 두분스님의 의지를 대중은 잘 참구하여야 합니다.
德山스님이 발우를 들고 당으로 가니 설봉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덕산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방장실로 돌아갈 때, 설봉스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말후구를 말하는 것이고, 금일 산승은 암두, 덕산 두 스님께서 설봉스님이 말후구 못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일부러 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 산승이 있었다면, 즉제가 설봉스님이었다면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가는 덕산스님께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紅火團轉 淸水滔滔
붉은 불뭉치가 구르니
맑은 물이 넘치고 넘치는도다.

그리고 저에게 "巖頭密啓의 意旨가 如何오?"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露爲無爲露 隱爲也無隱
드러내려 해도 드러낼 수 없고,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네.

喝
[拄杖三下 下座하다.]

마음 여여하게 쓰면 곧 성불하리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慾執因製雲 욕심인제운
被欺自作影 피기자작영
覺心知映影 각심지영영
常淨靜佛心 상정정불심

욕망과 집착이 만든 온갖 구름
자신이 그린 그림자에 속고 있구나.
마음으로 그려진 그림자인 줄 알면
항상 맑고 고요한 부처님 마음이네.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오욕락에 이끌려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도 자기 생각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그림을 스스로 그려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각자 자신의 몫이지만 그려낸 욕망의 그림자에 속아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잘 살펴보면 보일 것은 고요한 마음 바탕에 생각으로 그려낸 갖가지 그림임을 스스로 깨달아 생각의 그림자에 속지 않으면 항상 맑고 고요한 부처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늘은 늘 맑고 깨끗해서 연꽃에 비유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싱그러운 연꽃을 피워서
은은한 향기를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때 묻지 않는 맑은 향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온갖 세파가 밀려와도 밖의 경계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맑게 깨어서 자신을 보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보고 있어야 한다.
분노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아- 잘못됐구나! 바로 고쳐라.
본래 자신의 여여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잘못을 바로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항상 맑게 깨어서 자신을 보라.
화두를 성성하게 들고 있는가를 보라.
쓸데없는 망상에 휘말려 있지 말고
화두 일념에 있는가를 살펴보라.
여여한 마음으로
화두 일념으로 정진해 나가라.

미움도 원망도 온갖 시비도 전부가 자신의 생각이 만든
마음에 그림자인 것을 본래 나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늘 맑고 여여한 것이다.

무엇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딘가에 집착도 없는 유유자적한
마음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중국에 위산 선사가
제자인 향엄에게 물었다.

부모미생전에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향엄이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되었다.
몇 년을 궁구하고 또 궁구하던 중에 어느 날 풀을 베다가
기와 조각을 멀리 던지는 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다.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군가?
시회 대중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깨달았다면

하늘은 마냥 푸르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날려 다닐 뿐이네

동안거 정진 대중은 선원에서도, 율원에서도, 강당에서도,
염불원에서도, 각 법당에서도, 여여정사 금오선원에서도,
대성암에서도, 선문화관 시민선방에서도, 범어사 본사 말사가 동안거 기간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진 잘해서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菩提自性이 本來淸淨하니
但用此心하면 卽得成佛
보리자성이 본래청정하니
단용차심하면 즉 득 성불하리라.
우리가 모두 간직한 이 마음이 본래가 맑고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여여하게 쓰면 곧 성불하리라.
나 무 아 미 타 불

12월 4일(음력 10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을사년 동안거 결제 법회가 봉행됩니다. 이에 동안거 결제 법어를 게재합니다. 조계종 덕숭총림 · 조계총림 법어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난치병 환아에 희망을…자선음악회로 치료비 모금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0.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유일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1월 22일 서울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일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총무 혜룡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축령사 주지 설봉 스님, 미륵암 주지 혜각 스님, 석천암 주지 법광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정현숙 마하무용단장,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박홍근 국회의원, 최윤찬 중랑구의회 부의장, 조성연·주덕성 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과 생명나눔 회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은 2009년부터 매년 동국대일산병원에서 한다솜 희망음악회를 개최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2019년에는 10년을 기념하며 자선음악회 형태로 확대했다.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자선음악회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이식대기 환자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를 모금하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치료비 지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난치병 환자 3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하는 '제4회 생명나눔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대상은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에 돌아갔다.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한마음선원은 2014년부터 매월 정기 및 일시 기부를 통해 누적 1억원 이상 난치병 환자 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캄보디아 의료 및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미생물(EM)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코로나19 당시 지역 내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과 물품을 지원했고, 국내외 재난 발생 때마다 신속히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무료 급식,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명용 제4회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장은 "한마음선원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 온 귀감이 되는 단체"라며 "생명나눔운동의 가치와 철학을 널리 확산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과분한 상이지만 한마음선원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함께 움직여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고 생명들이 이롭게 살아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생명나눔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큰스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받은 대상 상금 5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다시 후원해 훈훈함을 전했다.

특별공로상은 마하무용단에 돌아갔다. 2017년 창단 후 매년 지역 복지관, 어르신 효잔치 무료 공연, 불우이웃돕기 봉사 활동, 장기기증자를 위한 살풀이 공연 등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선음악회를 기획해 티켓 수익금을 난치병 환자를 위해 기부하는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홍보상은 황재훈 BBS불교방송 라디오국 PD, 생명상은 의대생 자살예방 동아리 따숨(따뜻한 숨결)에게 돌아갔다. 나눔상은 조한순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속 자원봉사자가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노래를 통해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는 가수 신현희가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문화공연이 시작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 가수 장미화, 개그맨 엄영수,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소리꾼 이장학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의 귀한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오늘의 자리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를 주관한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함께해 준 모든 이들 덕분에 생명을 살리는 기적, 행복을 나누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자선음악회 수익금이 난치병 어린이와 이식대기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식등록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걷기명상&플로깅,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산사문화예술제, 자선음악회,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통해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1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는 12월 2일 오전 9시 서울 중랑구청에서 열린다. 02-734-8050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22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다양한 공연뿐 아니라 '제4회 생명나눔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대상은 한마음선원에 돌아갔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의 귀한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마하무용단의 춤사위는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소리꾼 이장학이 특별 출연해 중랑구청 대강당을 소리로 가득 채웠다.



활기 넘치는 태권도 시범공연은 동참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생명나눔, 11월 22일 자선음악회
'선율 위 나눔, 춤추는 마음' 주제
일면 스님 "귀한 가치 실천 시간"

제4회 생명나눔대상 한마음선원
혜수 스님, 1000만원 후원금 전달
마하무용단·장미화·엄영수 무대

"대행 큰스님 가르침 실천하겠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오른쪽)과 일면 스님의 기념촬영 모습.

제4회 생명나눔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한마음선원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선원 창립 이념 아래 다양한 나눔·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쌀뜨물을 친환경 유용 미생물(EM)로 발효시켜 하천 정화에 활용하는 '지구사랑 작은실천' 운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80여개 기관과 학교, 복지시설에 EM 발효기기와 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환경운동은 '자연도 생명'이라는 생명나눔의 철학을 사회 전반에 전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혜수 스님은 "일면 스님은 항상 한마음선원이 걸어가는 길을 격려해 주셨다"면서 "우리가 생명나눔에 공헌하거나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대상 수상이 과한 것 아닐까하는 생각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선원 대중이 대행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변함없이 화합하며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에 모두가 함께 받은 값진 상"이라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잘 걸어가라는 의미가 담긴 상인만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배희정 객원기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5 인과 업보는 피할 수 없는가



▶한줄 요약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틈 날 때마다 '내가 분별심을 가졌었구나'하고 툭툭 털어 버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을 돌리면 팔자가 바뀐다

>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인과의 모습
> 희로애락 감정으로 분별심 생겨나니
> 순간순간 참회하고 분별을 내려놔야
> 참회 습관 되면 무애자재 보살된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티끌 모아 태산은 티끌 하나 내치지 않고
바다는 온갖 강물 마다하지 않는다네.
마음을 허공같이 분별치 않으면
오만 생각 갖은 감정 무엇이 문제리오.

태산 같은 큰마음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허공 같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약간 헷갈릴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과 갖은 감정 자체가 분별(分別)된 것인데 약간 모순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한 생각, 한 감정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도인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갑자기 '왜 참회인가' 하겠지만 우리는 틈 날 때마다 '내가 분별심을 가졌었구나'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은 인과(因果, 원인·결과)의 모습일 뿐이고, 자업자득(自業自得)일진대, 또 내가 상(相)을 내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여 스스로 망상(妄想)과 삼독심(三毒心)을 또 내고 말았구나' 하고 참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든 화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훌훌 털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횟수를 늘려서 하루 한 번 이상 하다 보면 순간순간 마다의 습관이 길러지면 궁극에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자재(無碍自在) 보살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쉬운 법과 상식입니다. 법은 인과법을 말하는 것이고, 상식은 인과법을 잘 알아 망상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과법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것과 싫은 것, 이득과 손해는 한치 오차 없이 서로 똑같은 질량을 가졌으니 결국 공(空)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코 공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불자들 중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을 친다거나 풍수를 본다거나 갖은 방법을 써서 예방을 한다거나 한방의 기도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거나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려는 알량한 시도 등은 도둑놈의 심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에 있어서 이러한 작태들은 오히려 나쁜 과보(果報)로 이어지게 됨으로 철저히 배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장애(障碍)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팔자와 인과 업보(業報)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돌리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조심하라고 해서 평생 물 근처는 가지도 않았으나 어느 날 넘어져 코를 박고 죽었는데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 기도를 막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든 사례지만 이와 같이 큰 업(業)을 함부로 좌지우지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써 팔자를 고치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명상]
이러쿵저러쿵 골백번 궁리해도
이 기분 저 기분 변덕스런 감정뿐,
이성(理性)과 지성(知性)으로도 어찌 할 수 없을 때
기도와 참선은 마지막 자산(資産)이리니.

중생의 마음은 정(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을 느끼는 것이 감정(感情)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유정(有情)이라 합니다. 정을 빼면 목석(木石)이 아니면 부처입니다. 정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즐거운 정과 괴로운 정,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정(無情)입니다.

이를 유식(唯識)에서는 수온(受蘊), 즉 고수(苦受), 낙수(樂受), 사수(捨受)를 합쳐 삼수(三受)작용이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한다. 대개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그 무엇을 생각하면 기억과 함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며 무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부처와 보살, 아라한과 조사 스님들은 감정을 완전히 여읜 자비(慈悲)와 적멸(寂滅)이 있을 뿐이니 생사(生死)와 생멸(生滅)이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감정이나 괴로운 감정,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 중에 하나만 생겨도 나머지 다른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감정은 괴로운 감정에 의해 생기게 되고 괴로운 감정 역시 즐거운 감정 때문에 생기게 되므로 이 둘의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낮과 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감정이 100이면 괴로운 감정 역시 10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감정의 질과 양은 한치 오차 없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모든 행동과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인연은 인과(因果)에 의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부차적인 것일 뿐인데, 문제는 고락사(苦樂捨)의 감정이 불필요하게 얹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는 정작 고통스러워 울고, 어머니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어났으니 즐겁고, 자식을 낳았으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서도 고락은 함께 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부자이고 높은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이면에 남모를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부단히 욕심내어 노력하고 성취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락사의 감정 기복은 커져만 갈 뿐이니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려도 그 자리를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게 되고 이것과 저것,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인과적으로 생멸(生滅) 변화할 뿐이니 그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락사의 감정이 번갈아서 자가발전(自家發電)하여 계속적으로 윤회(輪廻)하게 되니 이 고리를 끊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삼세(三世, 전생·금생·내생)의 총량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라도 더 괴롭거나 더 고통스럽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 뒤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락사의 감정 자체를 여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몰되어 계속적인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없으므로, 이것의 해결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여 마음 수행의 기치를 높이 내걸어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행동지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입각하여 당장이라도 기도, 참선, 보시, 정진의 틀을 하루빨리 갖춰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22 소비욕 : 유하의 '오징어'



▶한줄 요약
유하는 시 '오징어'를 통해 유혹을 의심하라고 조언한다. 독자분들이 성찰의 빛을 밝혀 소비와 무소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세우길 기대한다.

욕망의 등불, 집어등

몇 해 전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에서 집어등(集魚燈)을 본 적이 있다. 제주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등불에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아이에게 집어등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 주는 100개의 달과 같았다.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아이의 마음을 보듬고 싶었던 제주 어른들은 태풍이 몰려오는데도 여러 배들을 동원해서 등불을 환히 밝힌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를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아마도 그 안에서 '사람'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드라마의 이미지와 달리 현실에서 집어등은 밤중에 오징어나 고등어, 갈치 등을 잡기 위해 밝혀 놓은 불빛일 뿐이다. 글자 그대로 물고기[魚]가 모일[集] 수 있도록 켜 놓은 등(燈)이다.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특성을 이용해서 인간이 놓은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그 덫에 걸리면, 물고기는 꼼짝없이 생을 마감한다. 어부에게 불빛 바다는 가족들을 위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이 집어등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읽어 낸 시인이 있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란 시집과 영화로 유명한 유하 시인이다. 그는 이 책에 실린 '오징어'란 시를 통해 찬란하게 펼쳐진 모든 불빛을 의심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광명이기 때문이다. 마치 집어등이 오징어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인의 지적처럼 어쩌면 우리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수많은 홈쇼핑 광고라는 집어등의 유혹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과연 우리는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유하는 시인이자 영화감독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평소 영화와 문학을 좋아하고 조예 또한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 그는 1988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한다. 1991년에는 앞서 언급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를 출간하고 대중에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상징인 압구정동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욕망을 그린 시집이다.

"시인은 정치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 성적 욕망이 뒤엉켜 타락한 산업 사회의 실상을, 그것에 가장 밀접한 리듬과 언어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 줌과 동시에 꼬집고 비틀고 희화화시켜 날카롭게 풍자한다."

출판사에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1993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시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으로 데뷔까지 한다. 당시 최민수와 홍학표라는 인기 스타가 주연으로 활약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고 만다. 그는 2002년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발표하고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다룬 이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고 사회적인 반향도 크게 일으켰다.

이후에도 유하는 시인보다는 계속 영화감독으로 활약한다. 고교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먹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말죽거리 잔혹사'와 조직 폭력배 이야기를 다룬 '비열한 거리'도 그의 작품이다. 2008년 발표한 사극 '쌍화점' 역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흥행에 성공했다. 2015년에는 1970년대 강남개발 이야기를 담은 '강남 1970'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유하가 영화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다.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후에도 〈세상의 모든 저녁〉을 비롯해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천일마화〉 등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1996년에도 〈세운 상가 키드의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우창 문학평론가의 지적처럼 유하는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표현하는 감성적이고도 지성적인 시인"이었다.

오늘의 시 '오징어'는 앞서 말한 자본주의 시대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유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비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이 만든 상품을 고객이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과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인은 현대인의 소비문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시를 통해 그 속내를 읽어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 인간의 욕망 보인 유하 시
모든 유혹의 광명 의심하라 조언
자기 성찰 통해 소비 철학 정립해야

"눈앞의 저 빛! / 찬란한 저 빛! / 그러나 / 저건 죽음이다 / 의심하라 / 모오든 광명을!"

소비욕에서 벗어나는 길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홈쇼핑이 TV에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가게에 가지 않고 전화로 주문만 해도 되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놀라웠다. 가격 또한 비교적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곤 했다. 등산복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쇼호스트가 "앞으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결국 전화기를 들게 됐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더니, 어느 학인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라고 반응하는 것이었다. 당시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홈쇼핑 중독이었다. 이를 알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게 됐고 오래지 않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샀던 각종 운동기구는 결국 옷걸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아마 지금도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한 러닝머신 위에 바지와 점퍼 등이 걸려 있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대 우리들 일상의 모습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화려한 홈쇼핑 광고는 유하 시인이 지적한 눈앞의 찬란한 빛이 아니었나 싶다. 비록 죽음은 아니었지만 유혹의 집어등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소비한 것이다. 물론 주문한 상품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낀 잠깐의 기쁨은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고 돌아보게 된다. 아무래도 좋은 물건을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다는 말에 걸려든 것 같다. 오징어가 집어등에 유혹돼 그물에 걸려든 것처럼.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시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광명을 의심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한글을 파괴해서 '모오든'이라는 형용사를 동원하고 있다. 나를 유혹하는 TV 광고를 비롯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네온사인, 백화점의 불빛 등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다. 저 빛들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의심하다 보면 적어도 그물에 잡힌 오징어 신세는 면할 것 같다.

시인은 의심이라고 했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다름이 없다. 저 물건들이 과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지 돌아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을 유명하게 만든 〈무소유〉란 책에 실린 구절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 법정 스님의 한마디다. 20여 년 전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에 꽂혀 지금까지 실천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탁기 없이 사는 것이다. 물론 이 물건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수행이라 생각하고 현실에서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찾아 낸 방법이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주변의 소리도 있고 두꺼운 겨울 외투나 이불 빨래를 할 때면 세탁기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또한 수행이라 여기면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다.

이처럼 세탁기는 안 쓰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그렇게 사 댔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던가. 물론 처음 등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끌어들이는 홈쇼핑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모든 유혹의 광명을 의심하라는 시인의 지적이 울림 있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생산과 투자, 고용 등이 잘 이뤄지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소비의 대상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낯선 곳을 찾아 여행하고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 형태다. 학자들에 따르면, 물건을 소유해서 느끼는 것보다 여행이나 공연 관람 등 시·공간에 소비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한다.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해석이다.

유하의 '오징어'를 통해 집어등으로 달려드는 일만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어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심의 빛, 성찰의 빛을 밝혀야 한다. 오늘의 종교와 인문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혜의 등이 켜지면, 소비와 무소유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57호 | 15 | 전면광고

화를 내면 공덕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공덕을 막아버린다. 무명을 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 조경, CCTV 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3층 건물 중 3층 위치, 약 60평
- 대법당, 소법당, 모임실, 공양간 등
- 창고, 남녀 화장실, 10평 테라스
- 프로젝터, 방송장치 등 구비 (강의 진행 바로 가능)
- 월세 : 100만원 • 보증금 : 2000만원
- 시설 권리금 : 협의

010-3269-9847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배밭골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금액 문의 (성북구청 보증금 5000만원 있음)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영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격 문의 바람

010-5635-9499

사 찰 안 내

- 대지 300평, 임야 40평, 답 29평
- 하천부지 100평, 국유지 1000평
- 전통양식 극락전(24평), 아미타불, 관음 지장 호신불 500불/전통양식 요사채(45평) 황토방4(각 방 욕실) 다락방(30평)/연못, 백옥관음보살상
- 이동식 주택(6평) 및 창고(6평) 전기차충전소 잔디밭, 텃밭, 꽃나무 및 조경수, 유실수 과수원 암반수 개울과 등산로 사찰 양쪽 존재 완벽한 시설의 힐링 사찰(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946-7527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2천만원

010-3466-9991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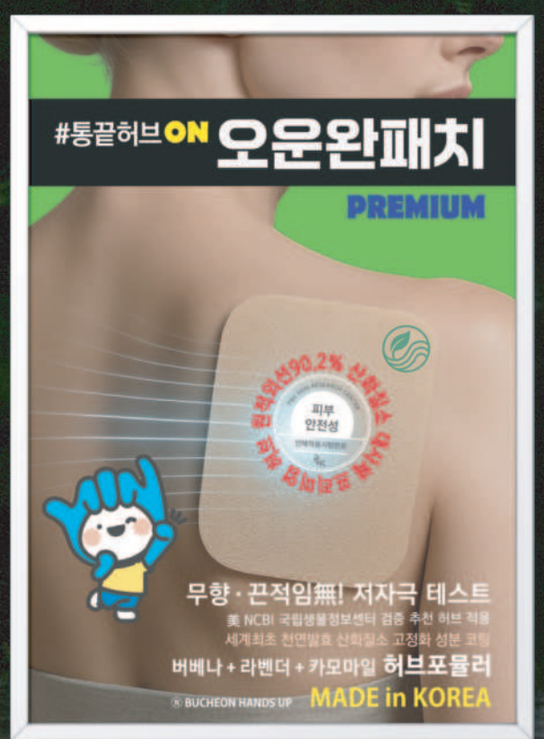
010-9177-784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우수
KCIA 온라인 스토어 오운완패치

오늘도 "오운완" 다섯 가지 기운을 완성하세요! 血·氣·心·體·精

아침 예불처럼 시작하는 하루 한 장의 습관
통끝허브ON 오운완패치가 당신의 건강 정진을 돕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 건강이 곧 공덕

허리·등
손목·엘보·손가락
어깨·목
발목·발바닥

원적외선 90.2%
세계최초 산화질소
허브 추출물질 배합

제품특징
✓ 근육관절 불편함 개선 ✓ 혈액순환 촉진 ✓ 피부저자극 ✓ 12시간 지속

HOT SALE
100매 35,500원
200매 69,000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57호 | 16 | 전면광고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장엄론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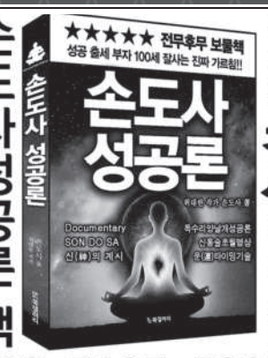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읽어봐주세요 책 손도사성공론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한달 시주금 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6번지4
010-6333-1488

• 한국전통무용(춤)
• 전 통 민 화(그림)
자 격 증
1급~2급 지도강사
-간단한 절차로 취득 기회-
대한민국장인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602호
상담 010-3007-1183

사주명리 (수강생모집)
나를알고 너를알자!
*기초반(10명선착순)
화.목 오후6시30분/일요일 오후3시
*중급반(5명선착순) 수 오후3시
*특(신살반)(10명선착순) 일요일오후6시30분
강의실:부산 진구 중앙대로 738번길 23
부전인삼센터 A동 2층(전통인술보존회)
상담 010-6381-1638

사 십 구 재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창작무. 태평소. 향피리. 등등
대~소 행사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충남북~서울~경기 일원
소중한 도량불사 중에
큰 공덕이 될것입니다.
봉헌사 주지 성광
041-338-1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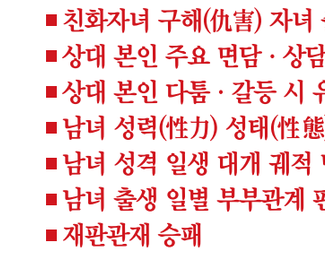
무료공개강좌
명리. 육효☞12.11(목) 14:00
영가 찾는 법☞12.11(목)16:00
•내 용: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수강료:1개월 무료, 월 15만
•장 소: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육임의 '지피지기(知彼知己)'그 놀라운 효과 – 익명성해체 – 만난(전화포함) 시간만으로 – 동일시간 여러人도(화면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 정확도·속도성·착목도·효과성 – 보장 !
초보자용 'B버전' Aver 과 전문가용 'A버전' Bver 을 버튼 하나로 즉각즉각 동시 사용됨

육임AI 휴대폰(안드로이드·아이폰)·노트북·테블릿·PC 연동 사용·저장 기능 장착·영구 필수적

■ 상대본인 당면사 순조 · 역조 · 불성 여부 판단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역조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명시
■ 상대 본인 당면 핵심사 명시 1 · 2 · 3
■ 상대이해 판단
이익 될 人 인가, 손해 날 人 인가, 피해 줄 人 인가, 무력한 人 인가 명시
■ 상대 신분 판단
대통령(될 자) 인가, 장관(급) 인가, 차관(급) 인가 명시
당면우고사가 해소 될 人 인가, 유여한 人 인가 명시
복잡다단한 궁핍 人 인가 명시
■ 상대 사생활 판단
남녀 삼각관계(1녀2남 · 1남2녀), 부부동시 연정관계 여부 명시
관재 송쟁 여부, 가옥권리양도(讓倒) 여부, 근친상간관계 여부 명시
■ 상대 생업 가정 흥쇠 여부
재기力 위한 이전 · 이사 · 길방 · 택일 명시
■ 상대 본인 질병 판단 명시
지나갈 병인가, 고질병이 되는가 명시
■ 상대 본인 목적사 판단
승진 · 選擧 · 매매 · 合格 · 주식 · 求財 등 24항 答 명시
■ 상대 송사 · 계획 · 사업 · 고민 규모의 大 · 小 여부 명시
■ 귀신 침범 · 부정 山所탈(좌향 · 육친 · 묘지 앞 전경 · 뱀굴 · 물구덩이) 여부 명시
-정확도 검증됨 해당 사안 해소 방법 적시함
■ 전화 상담 해답 명시
■ 즉시 판단 항목 수록 명시
■ 시험 · 선거 합격 당선 등 24항목 성부 판단 명시
■ 출산(出産) 길일 길시 선택, 연월일시 명시
■ 상대 본인 운세(明暗 정도) 명시
■ 상대 본인 사정(전체적 · 구체적 · 적확도) 명시



한 화면 한 눈으로 판단, 화면 각 항목별 효능판단보기 ▼ 버튼 붙음

■ 친화자녀 구해(仇害) 자녀 출산 구별(띠) 명시
■ 상대 본인 주요 면담 · 상담 · 담판 시 이기는 좌석 명시
■ 상대 본인 다툼 · 갈등 시 유리해질 처신 방침 명시
■ 남녀 성력(性力) 성태(性態) 명시
■ 남녀 성격 일생 대개 궤적 명시
■ 남녀 출생 일별 부부관계 판단 명시
■ 재판관재 승패
국가 · 개인 간, 남자 · 여자 간, 집안 수상 · 수하 간 승패 명시
■ 상대 본인 운세 비교
현재 장차 – 봄 夏 가을 冬 별 진퇴 조절 명시
■ 진행사 성사 월일시 선택
진행 · 회피 – 어떤 월일시로 변경해야만 좋은가 명시
■ 상대 충성 배신 판단
충성할 것인가, 좌고우면 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명시
■ 상대 심중 판단
나를 신뢰하는가, 자기 고집을 부리겠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관계가 없게(不成)되는가 명시
■ 상대 말의 진위 판단
진실한가, 위선인가, 거짓이 많이 섞였는가 명시
■ 난사(難事) 교섭 판단
선이후난 선난후이 교섭 불가 여부 명시
■ 가옥 · 장소 길좌방위 명시 및 길사 · 발로 연월 명시
■ 상대 본인 복장 上下로 상황 판단 명시
■ 뇌물증여 효과 여부
뇌물효과 있겠는가 안 받겠는가
■ 이전이사 · 호악
留 – 去, 좋을까 나쁠까명시 등등등

■ 정가 : 95만원 ■ 주문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
■ 입금계좌 : 농협 301 0252 7245 11 도서출판 보화천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4 세림페리체 1301호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㉓ '나의 아저씨'(2018)

'자리이타원만' 불교 가치 드러내

〈自利利他圓滿〉

중국에 선(禪)을 전한 달마 스님에게 혜가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스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리라." 이어지는 혜가 스님의 대답. "마음을 찾아도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달마 스님의 대답이 이어진다. "찾아지면 어찌 그것이 너의 마음이겠느냐?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안심법문'으로 유명한 선종의 일화이다. 달마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드라마들이 있다. 오늘은 치유 드라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이지안(배우 이지은)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지만, 버는 족족 아버지가 진 사채를 갚으며 살아간다. 그 와중에 정당방위로 판정을 받았지만 살인도 저질렀다. 정상적으로는 세상을 살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지안을 괴롭히는 사채업자 이광일(배우 장기용) 역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광일은 분노와 폭력으로밖에 의사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다.

남자 주인공 박동훈(배우 이선균)은 어떤 상황에서도 꾹 참고 버티는 '착한'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 건설사 부장으로 일하는 집안의 기둥이다. 한직인 안전진단 팀으로 밀려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티고,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인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저 버틴다. 게다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형과 동생에, 그런 형제를 걱정하는 노모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 동훈의 아내인 변호사 강윤희(배우 이지아)는 대학 때부터 사귄 동훈의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본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라 자신이 1순위가 아닌 동훈에게 늘 화가 나 있다. 그래서인지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학 동기인 도준영(배우 김영민)과 불륜을 저지르는 중이다. 도준영은 도준영대로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륜 상대가 하필이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진 학교 선배이자 직장 부하인 박동훈의 아내 강윤희다.

이처럼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불교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아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나의 아저씨'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가족에 희생 지안과 버티던 동훈
현실 아픔 확인하고 서로에 위안
달마 스님 안심법문 같은 드라마

동훈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아냐"를 약 삼아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갑자기 출장을 간다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굳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참는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동훈의 말은 사실 그것이 '아무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동훈의 삶은 준영의 지시로 동훈의 흠을 잡기 위해 도청하고 있던 같은 회사의 임시직원 지안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동훈이 지안에게 가진 관심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지안을 만난 동훈은 추운 겨울에도 복숭아뼈가 드러날 만큼 짧은 양말을 신고 있는 지안의 발을 본다. 다음날 동훈은 "배고픈데 밥 좀 사 주세요"라는 지안의 말을 끝내 외면할 수가 없다. 결국 "춥지 않냐"고 양말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으로서의 관심을 드러낸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저씨'는 성별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버젓한 어른'을 상징하는 단어다. 지안의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기 직전임을 알고, 손녀에게는 부양 의무가 없음을 알려주어 무료로 요양병원에 있게 해 주고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고 묻는 것은 바로 지안의 주변에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축은 동훈의 친구 정희가 운영하는 작은 선술집 '정희네'에 밤마다 모이는 동네 사람들이다. 일명 '정희네' 일당이라고 할 만한 동훈의 형과 동생, 그리고 선후배 친구들. 평범한 소시민으로 선하기 짝이 없는 이들은 야근한 지안을 다 같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지안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러 주기도 하면서, 지안에게 기꺼이 어른 노릇을 해 주는 인물들이다. 지안은 제대로 된 어른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감을 배운다.

번듯한 대기업의 부장에 변호사인 아내를 둔 동훈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지안은 동훈을 도청하는 동안, '아저씨'의 인생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그리고 희망이라곤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동훈이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한다. 지안이 자신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훈 역시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모습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 지안을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 대하듯 한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가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드라마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란 노래 가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가족 때문에 희생하던 지안과 그저 버티기만 하던 동훈은 서서히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워 가고 드라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자리(自利)'의 삶이 바로 '이타(利他)'의 삶임을 가르쳐 준다. '자리이타원만(自利利他圓滿)'이라는 불교의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이타원만'의 가치를 "너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는 동훈의 말로 강조한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시간이 흘러 길에서 우연히 지안을 만난 동훈은 또래 여성들과 어울리며 밝게 살아가는 지안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묻는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지안(至安)'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지안의 안부를 묻는 이 대사는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을 떠올리게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이 지면을 통해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 주신 분들께도 정중히 여쭙고 싶다. "드라마로 보는 불교를 통해 편안함에 이르셨습니까?"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출가자는 삼세 부처님이 호지한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㊺ 삼승공신의 권유(三乘共信의 勸誘)

그러므로 여래는 저 일체의 착한 왕과 그 권속들을 자비심으로 가엾이 여겨, 어둡고 긴 밤(착한 이들의 핍박 시대) 동안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부디 내 법에 귀의하여, 머리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방 책벌하지 말며, 내가 말하는 삼승의 바른 법을 헐뜯거나 방해 은폐하지 말라. 만일 내 말을 어기고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과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법에 귀의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의 모습은 곧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대비신력으로 호지하는 바이며, 그 위의는 모든 성현들의 해탈의 당기[幢] 모양이고, 그것은 또 모든 성문, 독각, 대승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해탈하는 모습인 동시에 수용하는 법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래가 설하는 삼승의 정법도 역시 삼세 부처님과 보살이 대비의 신력으로 호지하는 바이며, 이는 모든 성현의 해탈이 의지하는 곳이며 모든 성문과 독각과 대승이 수용하는 해탈의 법미(法味: 진리의 본질)가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따라서 해탈을 구하는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 귀의하여 머리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한 사람을 친근·공경·공양해야 하느니라.

①먼저 성문승의 법을 믿고 공경하되, 자기가 듣고 받아들였으면 남도 듣고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자기가 독송·필사·보시·설명하며 생각하고 수행하였으면, 남도 또한 그렇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하느니라.

②또 독각승의 법을 믿고 공경하되 자타가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자타가 같이 독송·필사·보시·설명하며 생각하고 수행하였으면, 남도 또한 그렇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하느니라.

③또 이와 같이 대승의 법을 믿고 공경하되 자타가 듣고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자타가 같이 독송·필사·보시·설명하며 생각하고 수행했으면, 남도 또한 그렇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그가 법의 그릇이 아니라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남도 듣지 말게 할 것이며, 일체의 악법을 멀리 떠나야 하며, 악한 벗을 버리고 착한 벗과 친할 것이며, 여섯 가지 바라밀을 닦아 익히고 일체 악업을 자주 참회할 것이며, 능력에 맞는 바른 소원을 부지런히 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지금의 몸으로 성문승의 그릇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혹은 독각승과 대승의 종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승을 다 배워 닦아야 하고, 교만하여 함부로 대승이라 부르면서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아야 하느니라. 나는 먼저 대승의 법기로서 굳게 수행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직 대승을 닦아 구경을 얻으라'고 말하였으므로, 먼저와 지금의 말이 서로 틀리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나타내기 위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많은 대중 앞에서 금강장 보살은 내게 물었다. ①계율을 깨뜨리는 악행 비구에게 어째서 공양하라 권하느냐고. ②두타의 공덕을 잃고 어리석고 나쁜 견해를 가지고 도를 더럽히는 법기가 아닌 사람, 그를 책벌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느냐고. ③어떻게 그를 따라 삼승의 미묘한 법의 진실한 해탈의 법문을 듣고서 적정의 열반에 나아간다고 설하느냐고. ④또 무엇 때문에 다른 경전에서는 대승의 해탈만을 주장하면서 '이승 법'은 배우지 말라 하시더니, 왜 지금 다시 삼승을 말씀하시느냐고. ⑤일체 유정을 가엾이 여겨 삿된 업 버리고 이익과 안락을 얻을 수 있게 의심을 풀어 달라고."

부처님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답하셨다.

"선남자야, 저 찰제리 왕의 권속 등을 이롭게 하기 위해 비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것이니, 그가 큰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이니라.

또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것은 모든 부처님 법의 당기 모양이요, 모든 부처님이 함께 호지하는 해탈로 나아가는 도복(道服)이니라.

비록 율의는 깨뜨렸지만 해탈을 영원히 막은 것이 아니니, 능히 나쁜 견해를 버리고 속히 열반으로 나아가리라. 마치 좋은 약이 썩었더라도 뭇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 같이 율의를 깨뜨렸더라도 남의 괴로움은 없앨 수 있느니라.

그 비구가 포살 갈마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 설법하는 것은 허락하나니 함께 복 받을 것에 의심이 없느니라.

또 만일 삼보에 귀의 공경하고 나를 일컬어 대사라고 존경하며 능히 온갖 악을 버리면, 저 외도의 무리보다 훌륭하니라. 마치 악귀(나찰) 섬에 떨어진 상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각각 짐승의 털을 하나씩 붙잡고 바다를 건너 어려움을 면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계율을 깨뜨린 사람도 온갖 나쁘고 삿된 소견을 떠남에, 하나의 믿음을 인으로 삼아 번뇌의 악귀에서 벗어나느니라. 해탈의 모양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호지하여 계율을 깨뜨린 비구도 괴롭히지 않나니, 온갖 중한 죄악에서 떠나느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23 조선의 여성, 공덕의 옷을 발원하다



▶한줄 요약
조선 후기 여성 불자들은 가사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복전으로 인식해 자수가사와 가사도를 발원했다.

가사에 공덕 수놓아 해탈 발원하다

출가 수행자의 법의인 가사(袈裟)는 본래 세속의 사람이 버린 헌 천을 모아 꿰매서 만든 옷에서 시작됐다. 더럽고 쓸모없어진 옷을 모아 지었기에 가사를 '분소의(糞掃衣)'라고도 불렀다. 가사를 이르는 다른 말로 '납의(衲衣)'가 있다. 낡은 천 조각들을 누덕누덕 기워 만든 옷이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사를 부르는 또 다른 말로 '복전의(福田衣)'와 '공덕의(功德衣)'도 있다. 가사를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만으로도 재가자가 복을 지을 수 있기에 생긴 말이다.

'공덕의 옷'으로서 만들어진 가사는 원래의 누더기 가사와는 모양새가 달랐다. 금실로 무늬를 짜 넣은 값비싼 비단으로 가사를 짓거나, 비단 바탕에 아름다운 색실로 자수를 해 장엄한 것이다. 이 같은 특별한 가사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걸쳐 국왕들이 나라의 안녕과 국난의 극복 등에 기여한 큰스님들께 하사한 예우와 감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불법승의 삼보(三寶)를 구상적인 도상으로 수놓은 자수가사(刺繡袈裟)와 이를 회화적으로 옮긴 가사탱(袈裟幀)도 출현했다.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자수가사와 서울 청룡사(靑龍寺) 가사도(袈裟圖)가 그것이다. 두 성보는 재료와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착용이 아니라 예경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으며, 발원자가 여성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자수가사, 18세기 후반~19세기 말, 비단에 자수, 244×65㎝, 서울공예박물관, 보물. 사진=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의 세부. 사진=서울공예박물관



가사도, 1902년, 무명에 채색, 232.5×111㎝, 서울 청룡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사진=국가유산청

바늘과 실로 이룬 수불(繡佛)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자수가사는 불보살, 경전, 존자를 수놓아 삼보에 대한 예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현존 유일의 가사다. 자수가사의 속에 붙인 명주에는 "무자생 곤명 박씨가 수불을 발원(繡佛發願戊子生坤命朴氏)"했으며, "비구 해붕천유가 증명(證明比丘海鵬天遊)"했다는 내용의 묵서가 있었다고 전한다. 비록 단편적 내용이긴 하나, 여성 재가 신도가 공양했고 당대의 고승이 증명을 맡은, 예불을 위한 '수불'이란 점을 알려 주기에 중요하다.

해붕천유는 순천 출신으로 선암사에서 출가했던 해붕전령(海鵬展翎, ?~1826) 스님이다. 연구 초기에는 해붕전령 스님의 활동 시기를 고려해 곤명 박씨가 무자년인 1768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자수가사는 18세기 후반에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곤명 박씨가 1828년에 태어난 재가 여성 불자이며 자수가사는 19세기 말에 조성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곤명 박씨와 해붕천유 스님과의 관계나 이 가사 불사의 구체적인 정황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살피기 어렵다. 다만 해붕천유 스님의 출가 사찰인 선암사에 삼보명 자수가사(三寶名刺繡袈裟)가 전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선암사와 서울공예박물관 소장의 두 자수가사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가사는 최고의 품계에 해당하는 25조(條)의 대가사이다. 조각의 세로줄을 뜻하는 조(條)의 수는 가사의 품계(品階)를 나타낸다. 두 가사는 125조각의 비단을 연결해 만들어졌고, 각 줄마다 4면은 길고 1면은 짧은 4장 1단(四長一短)의 구성이란 점도 동일하다. 두 가사가 불 25위, 보살 50위, 존자 25위 및 25책의 경전을 수놓아 장엄됐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가사에는 차이점도 여럿 있다. 우선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는 예경을 위한 '수불(繡佛)'로서 조성됐다는 점이 제일 다르다. 자수가사에 착용을 위한 가사의 끈[纓子]을 달지 않은 이유이다. 실제 착용을 위한 가사의 상단에 보이는 일월 자수장식이나 네 모서리의 사천왕 자수장식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선암사 삼보명 자수가사에는 삼보가 문자의 형태로 수놓인 반면,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에는 동일한 요소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된 것도 큰 차이점이다.

자수가사에는 위부터 아래의 순서로 첫째 단에는 부처, 둘째와 셋째 단에는 보살, 넷째 단에는 경전, 다섯째 단에는 존자가 정연하게 배치돼 있다. 백색의 비단 바탕 위에 갖가지 색깔의 비단실을 이용해 다채롭게 수놓은 불보, 법보, 승보의 모습은 저절로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정중앙의 1조가 100위의 부처, 보살, 존자를 배치한 기준점이 된다. 주폭인 1조에는 부처와 보살, 경전, 존자가 모두 정면향으로 표현된 데 반해, 그 좌우로는 불보살과 존자가 중앙을 바라보는 측면향으로 묘사됐다. 이러한 구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전이다. 경전은 어느 줄에 배치됐는가와 관계없이 정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로형 혹은 세로형으로 표현되거나, 오른쪽 혹은 왼쪽을 향해 몇 권씩 비스듬히 겹쳐 둔 모습으로도 묘사됐다. 책의 형태나 놓인 방향에 관계 없이 경전 명칭이 명확히 제시된 것도 특징이다.

붓으로 그린 가사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에 보이는 도상과 구성은 1902년에 조성된 청룡사 가사도에서도 확인된다. 화승들은 기본적으로 25조의 가사 제작법에 근거해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 좌우 가장자리에 1줄씩 더해 위아래로 사천왕각 2위와 화기란을 배치했다. 이 같은 사천왕의 배치는 가사 네 모서리에 부착되는 사천왕첩을 연상시킨다. 붉은 가사의 가장자리에는 실제 가사처럼 바느질의 위치와 땀수도 섬세하게 그려졌다.

한편 경전의 표현은 자수가사에 보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조선 말기에 크게 유행했던 책가도(冊架圖)를 연상시킨다. 책과 각종 진귀한 물건들이 책가 안에 놓인 모습을 그린 그림을 책가도 혹은 책거리라고 한다. 18세기 후반에 궁궐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시작된 책가도는 19세기에 접어들면 민간으로도 확산됐고, 책가 없이 책과 여러 기물만을 그린 책거리도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청룡사 가사도는 실재하는 자수가사와 책거리 그림을 참조해 형성된 유례 없는 불화라고 할 수 있다.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본래 양주 수락산 학림암(鶴林庵)에 봉안됐던 것이다. 화기에는 고종과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 내외, 영친왕과 순비(淳妃, 후일의 순헌 황귀비 엄씨)의 안녕을 축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녀 병오생 정씨 청정화(信女丙午生鄭氏淸淨華)가 대화주(大化主)로 참여했고, 별도의 시주자가 명기돼 있진 않다. 축원문의 형식이 순헌 황귀비가 발원한 불화와 같고, 다른 불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불화라는 점에서 순헌 황귀비가 주축이 돼 발원한 불화로 짐작된다.

해탈의 옷, 공덕의 옷

〈불설가사공덕경(佛說袈裟功德經)〉에서는 가사에는 위덕(威德)이 있어 이를 수하는 이는 스스로 복전이 되며, 가사를 짓는 이는 속히 수승한 과보를 이룬다고 설한다. 또한 가사를 조성한 이는 온갖 재앙에서 벗어나고 그 가사에 공양한 사람에게는 백복(百福)이 구름처럼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19세기에 이러한 경전이 필사되고 널리 유통되면서 가사 공덕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됐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사는 수행자의 몸을 보호하고 깨달음의 길을 드러내는 해탈의 옷이며 이를 조성하거나 공양하는 일은 불가에서 큰 공덕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조선의 여성들은 바로 이 공덕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고 이에 감응하여 자수로 또 회화의 형식으로 가사 불사를 발원한 것이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바로 잡습니다 1555호 18면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에서 불암사(佛巖寺)를 불암사(佛庵寺)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불기 2570(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을사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강원지사	010-7339-8688	이동격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현대불교신문



대행 스님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자기완성을 하십시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젊을 때는 남들 따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보자 하다가 또 어떤 힘든 경계에 부딪쳤을 때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변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이렇게 나온 거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지.' 이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었다가 더러우면 벗어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몸뚱이도, 젊어서 병이 들든 늙어서 병이 들든 옷이 다하면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새 옷만 입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싹만 없어졌다 뿐이지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소립니다. 봄이 오면 새 풀이 또다시 나듯이.

그 뿌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며 저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그렇습니다. 수명이 짧고 길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우리 이 육체 자체도 실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옷이 주어집니다. 세련되고 아주 좋은 옷으로 입느냐, 또 나같이 이렇게 못나 빠지게 옷을 해 입느냐, 하하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탈로써 옷을 입느냐, 독사의 옷을 입느냐. 그 여러 가지 옷이 많고 많은데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경험대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탤런트로서 어떠한 배역을 맡을 때, 평상시에 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무슨, 가난하고 부자로 살고 이래서가 아니라 없든 있든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행



그림 · 최주현

을 했고, 어떠한 말을 했고, 상대성 원리로써 폭넓게 살았느냐 폭넓지 못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대로, 자기가 산 대로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배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디서 왔는지를 필연코 알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말을 하자면,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또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생명들을 막론하고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명하건대 우리가 공기 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알고 배우고 증득해서 그 어항 속을 벗어나야만이 자유롭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서, 모두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하고 어리석은 듯해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화두를 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두선이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물질로다 치닫는가 하면 형상으로 치닫고, 형상으로 치닫는가 하면 모든 점에서 정신세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통신으로 전달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도리를 여러분이 하나도 몰라요. 그저 조급하게 불끈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해치워 버리고 그냥 말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갈갈이 뜯어 먹고 하는 경향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도 걸림이 없이, 돌 위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긁어서 고(苦)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애고를 만들고, 자기가 긁어서 모든 병고를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대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한데 합해져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을 또 내놓습니다. 먹는 대로 내놓습니다. 그럼 내놓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바로 증발이 되고 모두 화해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달한 까닭에 다시 또 먹습니다. 그러니 내놓으면 먹게 되고, 먹게 되면 내놓고 이러는 작업이 계속되죠. 이 도리를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지, 목탁 치는 것만 불교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것, 미래로 인해서 오늘 현실에 오는 것, 이 전체를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삼세라고 그러죠. 또 삼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굴러오면서 교차하면서 살아나온 그 자기의 인과 업이, 선하게 행을 했다면 선행의 업이 있을 거고 악하게 행을 했다면 악행의 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그 구성원들을 교화를 시키는 데 여러분의 마음의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는 일체제불과 둘 아닌 마음을 지니고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아래로는 그 믿는 마음으로써 채찍질을 한다면 아래 내 몸속의 중생들은 스스로 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중생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는 작업이 정에 드는 방법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으로 그냥 남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깨닫는다고 합시다. 그거를 돈오라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생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나를 깨치는 거는 쉬워도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생 중생들은 내가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면 제도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놓고 들어가야 통신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따라가서 제도가 되는데, 바깥으로 끄달리면 절대로 통신이 되질 않아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정(定)에 들어야 한다.' 이 뜻이 뭐냐. 그냥 정에 들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고 앉아 있으면 정에 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에 드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작용하는 그 묘법과 그 묘용과 그 광대무변한 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전 세계에서 알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타의에다가 기도하고 상대에다가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하지, 자생을 제도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채찍질하면서 자기완성을 하려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 안에서 제도가 못 되는데 어찌 내가 제도가 되겠습니까?

업습을 녹이려면

질문 대부분의 불자들은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관법으로 내가 여태껏 쌓아 놓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나의 업습을 녹이려면 어떤 식으로 관하면 좋을는지요.

답변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말하고 행하고 한 그 자체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의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례차례로 거기에서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도 나오고 또는 세균성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과성이나 모두 인연에 따라서 그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업이다, 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나오는 대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다면 '주인공, 감사해!' 하고, 언짢은 일이 생긴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한다면 그대로 그게 대뇌를 거쳐서 입력이 됩니다. 대뇌를 거쳐서 사대를 통하면, 통신이 되면 바로 즉시 찰나에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올 때 바로 거기다 되입력을 한다면, 거기다 놓는다면 하는 소리가 '입력'이라고 합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지. 또 '너만이 지켜 줄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의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모든….' 자기한테 일거수일투족 다 오는 거를 전부 거기다가 맡겨 놓고,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잘되는 거는 '감사해!', 잘 안되는 거는 굴려서,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이끌어 줄 수 있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이 모든 거를 그렇게 거기다 놓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연방 없어지고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없어지고, 그릇은 항상 빕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인과성이나 세균성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기도하고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거기에 통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자리는 일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통신이 되는 통신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도 거기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도 좀 더 늠름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 자리가 궁금해요

질문 저도 이렇게 나를 있게 한 나의 근본 자리에 대해 궁금해서 불교에 입문하고는 여러 불교 서적도 읽어 보고 참선도 해 보고 했지만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 댁이 구경 안 해 본 데 이런 데를 내가 구경했다고, 창살이 몇 개니 거기는 무슨 섬이 있느니 뭐, 별말을 다 해도 가서 보지도 않고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얘길 한다고 해서 그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직접 가 봐라 이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뭐, 내가 배고픈 걸 남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귀가 뜨이고 눈이 떠지고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가고, 또 남의 숙명, 타심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게 도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 미국에 있는 걸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보나 마나니까 말입니다. 열 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을 보고 내가 집어먹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대로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 부처님 법은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데 고까짓 생활에서 무슨 쪼밀쪼밀하게 실험을 하라고 그러시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 마음, 자기 생활을 자기가 업신여기고 자기 몸을 자기가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을, 자기 주처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그런다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허공에다가 아무리 이름을 가지고 불러 봐도 대답 없는 허공이요, 또 이름을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봐도 그건 말뿐인 거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 앞에 계시다 할지라도 높이 보지 말 것이고,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여기 있다 하고, 풀포기가 있다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칠성이니 무슨 독성이니, 산신이니 용왕이니, 온통 부처님이니 나한님이니 이러고 부르면서 가지각색의 구원을 받으려고 앨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되 모두 각자 나로만 생각해라. 그 형상은 내 몸이요, 바로 그 마음은 내 마음이니 어찌 둘이겠는가." 하고요. 그 주처로만 똘똘 뭉쳐서, 바로 주처로 알아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알게 되고 그 주처마저도 없이 나툼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열반이요, 산 열반이요, 내세울 게 없는 자유인이라 이거죠. 영원한 자유인 말입니다.

이렇게 허구장창 약을 파는데도 자기에 맞는 약을 먹는 사람이 몇몇 될까마는 그래도 내가 업신여기는 것만큼 잃을 것이고, 내가 버리는 것만치 얻지 못할 겁니다. 몰락 버리되 버리지 말고, 버리지 않되 버려라. 하되 하지 말고, 하지 말되 하라. 여기 이렇게 모두 앉아 있고 일체 만물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이 되고 물질문명이 발달이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공했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조차도 공해 버렸어요. 그냥 그 공에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뭘 살기 싫고 살기 좋고 이게 있겠습니까, 거기. 붙을 자리도 없는데.

난 모르겠어요. 경을 나는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직 내 주처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 주처마저도 나툼이지, 없다는 거를 내가 시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발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주처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있기에 나의 이 살기 싫은 걸 살게 했는가. 어떤 놈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움죽거리게 했는가.' 그러고선 한번 지켜보는 거지, 뭘 그러십니까.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질문 요즘은 나름대로 참선을 해 보겠다고 시간을 정해 놓고 좌선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비워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답변 만약에 선생님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도를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건 끊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나오느냐?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의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관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이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자유스럽게, 생각할 일이 없으면 꽁지가 꽁지를 물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 그저 내일 모래 한 달 후의 일인데도 그냥 오늘서부터 그날까지 그냥 속을 썩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주인공에 맡기시고 침착하게 있으면 그때에 몸으로 할 거는 몸으로 하고 말로 할 거는 말로 하고, 보이지 않는 데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바로 거기서 하거든요. 그럭하면 모든 일이 다 아주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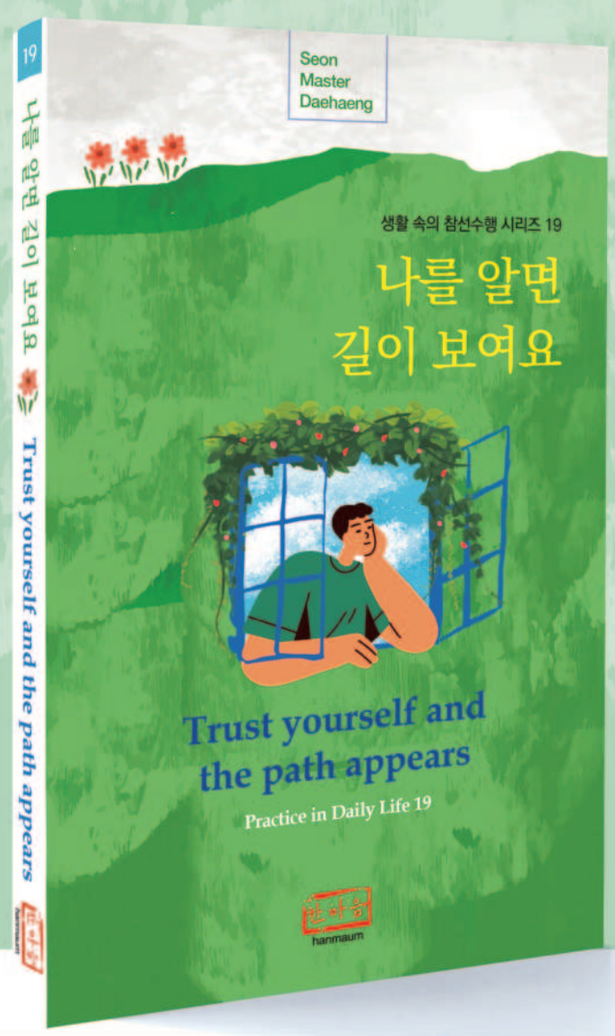
평소에도 항상 근본이 당신이니까, '주인공이시여!' 하고 모든 것을 당신이 형성시켜 놨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생각을 안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임시키세요. 다 놔 버리세요.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놔 버리고, 또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전부 주처에서 들이고 내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처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이고 꼭 '주인공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망상을 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녹이라 이 소립니다.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편안하지요.

> 우리는 지금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 우리가 이 마음 도리를 알고 증득해서 그 어항 속을 벗어나야만이
> 자유롭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51 마음의 힘, 일체유심조(2)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뀐다

어린 시절 가끔 손바닥만 한 '걱정 인형'을 쥐고 잠들던 기억이 있다. 작은 인형에게 걱정을 털어놓으면 밤사이 인형이 대신 품어 준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막연한 안도감을 주곤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걱정은 인형에게 넘겨 둘 수 없는,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되풀이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 특히 강박적 불안은 마치 '걱정 인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경고를 속삭이는 것처럼 멈추지 않는다.

뇌과학은 이 현상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MRI 촬영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강박적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위험을 과하게 감지하는 '걱정 회로(Worry Circuit)'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켜져 있다. 이 회로가 활성화되면 머릿속은 사소한 생각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떨쳐 내고 싶어도 계속 떠오르는 불길한 예감으로 채워진다.

문제는 이 경보 신호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박을 연구해 온 신경정신의학자 제프리 슈워츠(Jeffrey M. Schwartz)는 이러한 반복을 "생각의 문제가 아닌, 전환되지 못하는 신호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강박을 겪는 이들은 자신이 과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불안한 상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미 확인했음에도 다시 돌아가 점검하거나, 의미 없는 반복 행동으로 불안을 잠시라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뇌영상 분석은 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 준다. 위험 감지 기능을 담당하는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은 과열된 엔진처럼 활발하게 작동하고, 생각과 행동을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선조체(Striatum: 피각·꼬리핵)는 전환 신호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경보 장치는 계속 울리는데 기어는 바뀌지 않는 상태, 바로 이 조합이 생각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맴돌게 만든다.

이처럼 강박적 불안은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회로의 과활성과 전환 기능의 저하가 함께 만들어 내는 신경생물학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로의 고착이 곧바로 '되돌릴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뇌는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조정하고 연결을 다시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자극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작동 패턴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작한다. 다행히 뇌는 한 번 굳으면 변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뇌가 평생에 걸쳐 다시 배울 수 있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의 회로는 계속 재구성된다.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곧 뇌를 바꾸는 일이며, 이것이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말해 온 일체유심조의 현대적 의미이기도 하다.

걱정 회로가 만든 불안의 자동 반복
뇌가 다시 배우는 변화 가능성 발견

뇌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경과학자 에드워드 토브(Edward Taub)의 연구는 이 가능성을 실험으로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다. 토브는 마음과 뇌가 행동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행동심리의 단순한 자극-반응 도식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비판하며, 실제 실험을 통해 뇌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구심로 차단' 기술이었다.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을 차단하면, 원숭이는 해당 팔의 위치나 촉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원숭이가 감각이 없는 팔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정상 팔을 삼각끈으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던 감각 차단 팔을 원숭이는 점차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감각은 없었지만 환경이 바뀌자 행동이 재조정됐고 뇌는 새로운 사용 패턴을 학습했다. 이는 뇌가 입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행동을 회복하는 과정, 신경가소성의 실체를 직접 확인시켜 준 사례였다.

토브의 연구는 행동주의가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행동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마음과 환경, 뇌의 작동이 함께 얽혀 만들어지는 창조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경심리학과 인지과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뇌 손상 환자를 돕는 재활 치료에서도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실제로 토브의 연구는 후에 '제약 유발 운동요법(CIMT)'으로 발전해 뇌졸중 환자들이 마비된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돕는 핵심 치료법이 됐다.

'가소성'은 1890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발표했지만, 그는 신경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였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 세기가 흐르면서 그의 통찰은 신경과학의 핵심 명제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연구가 뇌 회로가 경험과 주의, 반복된 마음의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여러 신경과학자들은 불교의 마음 수행 전통과 만남을 시도했고, 그 여정은 인도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와의 대화로 이어졌다.

달라이라마는 책 〈행복론〉에서 "우리의 뇌 회로는 변화 불가능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뇌 역시 변할 수 있다"고 적었다. 뇌는 지속적인 경험과 주의의 방향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하며, 이 과정은 평생 계속된다.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돕는 힘. 알아차림 명상과 수행은 변화를 이끄는 마음 혁명의 단초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52 심부전

다리 붓고 숨차면 심부전 의심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해 오던 75세 김영희 씨는 요즘 들어 언덕만 오르면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다리까지 붓는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여러 검사를 마친 뒤 담당 의사는 '심부전'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소 생소한 이 병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 몸의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데,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들어오는 혈액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제때 내보내지 못할 때를 '심부전'이라 한다. 한자로는 '心不全'이라고 쓰며, 말 그대로 심장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다. 최근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심부전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위암과 비슷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부전은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고 서서히 진행되기도 한다. 원인과 증상, 검사 결과가 다양해 여러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나타내는 좌심실 박출률을 기준으로 나눈다. 박출률이 40% 이하로 떨어져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박출률 감소 심부전', 박출률이 50% 이상이지만 혈액을 채우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박출률 보전 심부전'이라고 한다.

심부전의 흔한 증상으로는 숨이 차는 느낌(호흡곤란), 쉽게 피로해짐, 다리나 발목의 부종, 체중 증가, 속 더부룩함이나 식욕 저하 등이 있다. 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가래 섞인 기침, 두근거림, 불규칙한 맥박, 실신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질환과 증상이 겹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심장내과 진료가 필요하다.

심부전의 원인은 다양하다.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이외에도 판막 질환, 부정맥(심방세동 등), 심근병증, 선천성 심장질환, 심근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당뇨병, 갑상선 질환, 빈혈, 만성콩팥병, 수면무호흡증, 과음, 비만 등도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조기 진단 · 적극적 치료 중요
고혈압 · 관상동맥질환 등 원인
싱겁게 먹고 술과 담배는 금물

심부전이 의심되면 여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흉부 엑스레이로 심장 비대나 폐울혈 여부를 확인하고, 심전도로 심장의 전기적 활동과 부정맥 여부를 살핀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크기와 구조, 기능, 박출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검사다. 혈액 검사에서는 NT-proBNP 수치를 포함해 빈혈 여부, 전해질 농도, 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심장 CT나 관상동맥조영술, 24시간 심전도(홀터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한다.

심부전 치료의 목표는 완치보다는 증상을 조절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며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다.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베타 차단제, 스피로노락톤 등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제이고, 최근에는 ARNI(사쿠비트릴/발사르탄)와 SGLT2 억제제가 효과가 뛰어난 약제로 인정받고 있다. 증상 완화를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동반 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판막 시술 또는 수술, 스텐트 삽입술, 부정맥 시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식도 고려된다.

일상생활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은 주 3~5회, 한 번에 30~45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식사는 싱겁게 하고 하루 수분 섭취는 2L 이하로 제한하며, 금주와 금연은 필수다. 심부전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폐렴, 대상포진, 독감, RSV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또한 일부 진통소염제나 특정 당뇨약이나 특정 비뇨기과 약물은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꼭 상담해야 한다.

심부전으로 치료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3일 안에 체중이 2kg 이상 급격히 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숨이 차는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며 어지럽거나 아찔한 느낌이 드는 경우, 심한 어지럼증이나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경우, 가슴에 답답함이나 통증이 느껴질 때는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심부전은 환자 자신의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약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길 꼭 당부드린다.



이은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노을빛을 닮은 고운 잎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서서히 물들어 간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나무가 품어 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나무는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거센 비바람을 견디며 생명을 키워 낸다. 그 과정에서 잎이 마르고 가지가 꺾이는 아픔도 겪었지만, 나무는 언제나 한 계절을 온전히 살아 낸다. 나무와 같이 고난을 이겨 낸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면서도 솜털처럼 부드러운 깊이를 지니게 된다.

단풍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싶은 마음이 진동해 시각장애인 불자들과 직업재활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으로 향했다. 낙산사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에 실린 파도 소리와 고운 잎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파도 소리와 자연의 말 없는 울림은 존재 그대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법문처럼 가슴 깊이 번져 왔다.

곳곳에 걸린 노란색의 리본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우리를 부르는 듯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리본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부모님의 만수무강과 자녀들의 건강, 가족의 행복 발원이나 연인의 사랑의 글귀들이었다.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간절함을 느끼게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봉사자들이 리본에 적힌 발원을 읽자 자신의 마음과 똑같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우리도 마음속 발원을 적었는데, 시각장애인이 발원을 불러 주면 봉사자가 대신 적어 함께 매달며 합장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같이 성불합시다"라고 외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가족은 변함없는 힘이 돼 준다. 서로 다르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다. 노란 리본에 적은 발원은 모두에게 감사와 화해,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됐다. 우리는 발원 리본을 바라보며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일이 중요함을 느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나는 처음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장애란 이유로 세상과 멀어져 외로움을 스스로 짊어진 채 살아간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숨겨진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이웃을 돌보는 멋진 불자의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낙산사 성지순례는 단풍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겼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도반임을 외치며 더 깊은 자비와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연기법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빛이 되어 주는 순간들이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밝히고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㉒ 단제 선사 황벽

깨달음에 국한되지 않은 불교

사람의 난자는 인체에서 가장 큰 세포로, 일반적으로 직경이 0.2㎜ 정도다. 난자의 무게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150ng 정도로 추정된다. 환산하면 0.00000015g이다.

이처럼 난자는 미세한 무게를 가지며, 일반 저울로는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값이다.

사람의 수정란은 난자와 거의 동일한 크기다. 수정이 이뤄진 후 세포 분열(난할)이 반복돼도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초기 난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분만기에 신생아는 대략 3.5kg, 50㎝에 이르게 된다. 태중에서 0.2㎜의 수정란으로 시작해 분만기에 50㎝에 도달한다. 임신 기간인 280일 동안 무려 2500배에 이르는 폭풍 성장이다. 신생아를 성인의 신장 170㎝와 비교하면 이 비율은 3.4배 정도일 뿐이다.

체중 변화의 비율은 어떠한가?

0.00000015g의 수정란이 3.5kg의 신생아로 태어나는 것은 230억 배로 증가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일깨운다. 그러나 신생아가 65kg 정도의 성인이 되는 것은 고작 18.6배 정도로 증가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비율은 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태중에서 거의 완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수치에 의한 변화로 인간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등 불교 문헌서
인간 탄생도 주의 깊게 다뤄
현대의학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

그러나 태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때 상상 너머의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일찌감치 파악했기에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불교 문헌에서는 인간의 탄생을 상당히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 대륙의 일반적 견해인 윤회의 문제가 개입되기에 더욱 그러했다.

대승의 문헌인 〈제경요집〉, 〈법원주림〉 등은 모태 내에서 태아의 성장 등에 관한 서술을 집중해 조명하고 있다. 갈라람위(羯羅藍位), 알부담위(遏部曇位), 폐시위(閉尸位) 등 태내 8위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서술을 대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란으로 맺어져 그 형태가 엉기어 묽게 된 것은 갈라람위다. 안팎이 조금 굳어진 형태는 알부담위다. 살이 생성되어 매우 부드럽고 연한 모습은 폐시위다. 단단해지고 두터워져서 점차 만질 만한 것은 건남위(鍵南位)다. 살덩어리가 자꾸만 자라나서 팔다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발라사거위(鉢羅賒佉位)다. 머리털과 손발톱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발모조위(髮毛爪位)다. 눈 등의 감각기관이 나타나는 것은 근위(根位)라 한다. 그 형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형위(形位)다.

상응부 문헌의 주석서인 〈아따카따(Aṭṭakathā)〉는 발생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 설명으로 해설해 주고 있다. 즉 갈라람은 세 가닥의 털로 만든 실오라기 끝에 놓인 기름방울만 한 크기의 미세한 물질이라고 '깔랄라'를 설명한다.

또 임신 35일에 이르러 돌출부가 나타나며 이로부터 손발과 머리의 다섯 돌기들이 생겨나는 것은 발라사거(pasākhā)라고 설명한다.

이는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산부인과의 분석에 견주어도 어떠한 손색이 없는 수준의 설명이다. 불교의 교학적 수준은 깨달음의 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 가을에 다시금 불교 경론을 뒤적여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청년 전법·포교에 사각지대 없어야

최근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발표한 올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최우수작품상과 각본상에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가 선정됐다. 작품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수능 고사장이 아닌 중소기업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보내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장실습생으로 처음 마주하는 세상은 냉혹하기만 하고 그 모진 세파를 맞아야 하는 열아홉 청춘들은 자못 안쓰럽기만 하다.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치르는 수능조차도 이들은 TV뉴스에 나오는 기사거리 정도다.

한국사회에서 '수험생'은 특별한 존재다. 수능 수험생을 위한 각종 선물 이벤트와 할인혜택들이 주어진다. 수능을 잘 치르라는 의미로 불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계도 법회와 미사, 예배를 연다.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이 기다리기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첫발을 내딛기에 모두가 '대학 진학'을 위해 매진한다.

하지만 모든 19살이 수험생은 아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비진학 청년'도 있고 여러 사유로 정규 교육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명으로 추산되는데, 학생 신분 부재로 인해 대학 입시 등에서 차별을 겪는다.

모든 청년의 기본값은 '대졸자'가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포교도 마찬가지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어디에서도 같은 크기와 같은 빛을 보이듯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나 똑같이 접할 수 있도록 불연(佛緣)의 끈을 제공해야 하는 게 불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불교계의 청년 전법·포교 영역도 '대학 진학'과 '대졸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진학 청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교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들을 위한 포교 영역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학 진학의 마지막 관문인 정시 시즌이다. 자신의 꿈을 위해 뛰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응원한다. 또한 조금 일찍 세상과 마주한 세상의 모든 열아홉들에게도 '힘내라. 넌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을 전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찬탄순례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11월 11일부터 사흘간 불교학부 학생들과 함께 삼보사찰을 순례했다. 학부생 100여 명과 함께 송광사를 시작으로 화엄사와 실상사 그리고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를 참배하는 일정이었다.

송광사에서는 보조국사 감로탑을 참배하며 승보종찰의 의미를 되새겼고, 화엄사에서는 사사자 삼층석탑을 찾아 중생구제의 참뜻을 새긴 사자빈신삼매의 원력에 동참하리라 서원을 세웠다. 실상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가람을 보았고, 해인사 장경판전을 참배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어 나라를 지킨 호국의 염원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의지와 원력의 근원이 되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마침내 부처님을 뵈었다. 스님들은 젊은 대학생 불자들이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것을 반가워했고, 화엄사와 해인사에서는 숙식까지 제공하는 환대를 베풀었다.

그렇지만 반가움과 기꺼움만이 가득한 순례길일 수는 없었다. 참배하고 순례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전통사찰의 하루 일과에 동참하고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느직한 아침 늦잠 대신에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에 동참해야 했고,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이 채워주던 저녁 일상은 저녁예불과 법문 그리고 저녁 9시에 취침하는 어둡고 조용한 산사의 밤이 대신 채웠다.

혼자만의 안락한 공간이었던 원룸 혹은 기숙사

학부 학생들과 삼보사찰 순례
힘들었지만 서로 알아간 시간
마음속의 삼보를 찾아가 보길

방 대신에 10명, 20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대방 생활의 불편함이 저녁이면 찾아들었다. 그것도 얼굴만 알고 낯설었던 서먹서먹했던 친구들과 함께였다. 스님들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무시할 순 없었지만, 일상생활을 떠난 데서 오는 불편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짧은 2박3일의 순례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정이기도 했다. 혼자서 묵묵히 순례길을 따라 참배하는 이도 힘들어하는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밀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서 1학년 남학생이 말했다. "우리 과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친구들 이름도 알고, 왜 외톨이로 살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말에 이번 순례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보와 법보와 불보의 삼보사찰을 찾아 나선 순례길, 그 길이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부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삼보사찰을 참배하는 순례길이었지만, 그 길은 나를 만나고 또 내 옆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길이기도 했다. 순례에 꼭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우리 불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삼보를 순례하는 길은 어떨까. 그 순례길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의 도반들을 잠깐 눈여겨 돌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순례를 아닐까. 불자라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례길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혹여 막 시작된 추위에 먼 순례길이 어렵다면, 스스로의 마음과 옆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순례길을 시작해 보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수능이 끝난 지금 수험생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정시모집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 앞에 서 있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이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예민하고 힘들 수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 학교의 기준, 사회의 욕망 속에서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살아 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잘 버텨 왔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들은 인정받고 사랑 받고 싶다는 욕구와, 거절과 실망을 피하고 싶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린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에 자신의 기준보다 부모·교사·또래의 기준에 의존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출 때 안전과 가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순응은 관계를 유지해 주는 동시에 자기 욕구와 감정을 숨기게 만들고, 외부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기대에 맞춘 나'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며,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을 향한 갈등을 겪는다.

한때 한국 사회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문구가 유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성적이 좋으면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부모님도 흐뭇해하며 자녀를 자랑스러워했다. 학생에게는 사랑받는 기준이 '성적'이 되어 버리곤 했다.

대학 입시 앞두고 힘든 수험생들
삶은 시험보다 길고 길은 하나 아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아갈 힘 줘야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선 뒤, 인생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는다. 좋은 성적이 반드시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으며,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곧 훌륭한 것도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적표나 명함에 있지 않다.

몇 해 전에 들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생각난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명문대에 입학하기를 강요했다. 그 학생의 삶은 쉼 없는 공부로 채워졌다. 부모가 원하던 대학의 합격증을 건넨 바로 그날, '이제 됐지'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부처님께서는 "과도한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욕망이 자비심을 잃을 때, 그 고통은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 향한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그 명문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 경쟁의 틀 밖에서 자신만의 길을 연 사람도 다수다. 공근식 박사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20여 년간 수박 농사를 지었고, 42세에 러시아 유학을 떠나 언어 장벽과 퇴학 위기를 넘은 끝에 박사 학위를 수석으로 받았다. 지금은 대학에서 양자역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는 다르며 배움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삶은 시험보다 훨씬 길고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 부디, 아이들을 믿고 응원하자.

정시를 앞두고 불안과 긴장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고마워."

이 한마디 말이 아이들에게는 다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기록, 기억을 지키는 힘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잊힌다.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비구니 승가는 수행·포교·교육·호국의 자리를 당당히 지켜왔으나, 그 자취는 기록되지 못하고 '보조의 역사'로 머물러 왔다. 뒤늦게라도 기록을 찾아 정리하는 일은 곧 한국불교의 역사를 온전히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의 활동은 주목된다. 연구소가 출간해 올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된 〈역사 속 한국비구니〉는 삼국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비구니 승가의 법맥과 활동을 정리한 최초의 연구서다.

또 연구소는 11월 27일 '근대 격랑 속 한국비구니 승가' 학술세미나를 열고 일제강점기라는 거센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수행과 실천, 항일운동을 이어간 스님들의 삶을 면면히 조명했다. 국채보상운동 참여와 군자금 조달, 독립운동가 돌봄까지. 기록의 부재로 묻혀 있던 역사를 찾아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출간과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출판·아카이브 구축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교육·문화·콘텐츠로 확장될 때 비구니 스님의 역사는 비로소 살아 숨 쉬게 된다.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미래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밑바탕이다. 기록되지 못한 비구니 수행자들의 숨결을 되살리고, 스님들의 뜻을 오늘의 한국불교에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다.

변화·발전하는 동국대에 응원을

불교종립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8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기록했다. 더불어 5년 연속 톱10 진입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우며 명실상부 상위권 대학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동국대는 종합순위에서 2021년 9위, 2022년 9위, 2023년 8위, 2024년 9위, 2025년 8위를 기록하며 5년 동안 상위 10위권을 안정적으로 수성했다.

특히 동국대는 올해 신설된 학문평가 부문에서 생명·화학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며 이공계열 전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동국대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목표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썼고, 이는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큰 요인이 됐다. 실제 불교계 등에서 답지하는 기부금은 평가 대학 중 기부금 분야 5위를, 학부 1인당 장학금 9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국대 변화의 중심에는 건학위원회가 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를 고문으로 지난 2021년 발족한 건학위원회는 '불교중흥, 동국발전'을 기치로 내부 역량을 결집했고 그 성과들은 이제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이면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는다. 동국대는 내년을 '국내 대학 톱5, 세계 대학 톱100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정하고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은 미래 불교를 위한 중요한 불사다. 교육을 게을리 한 조직에는 미래가 없음을 알고 인재 불사에 투자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Heungkuk 흥국생명

누구나 좋은보험!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 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추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3호 (2025-09-23~2026-09-22)